

90+ 123호

The 90th Anniversary
KWANGWOON

창학 90주년 소식으로 더욱 풍성했던 광운소식 123호입니다.
90주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문득 '90'과 닮은 'go'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간다는 의미로 '+'를 더했습니다.

광운 창학 90주년을 담은 광운소식 123호의 주제는 go+
다시 말해 이번 소식지를 통해
90주년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광운 100주년을로 나아가자!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운소식은 광운이 나아가는 모습 하나 하나를
충실히 담아 광운인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T. 02.940.5114 H. www.kw.ac.kr

광운 소식

VOL.123 · AUTUMN 2024



KWANGWOON NEWSLETTER Vol.123
Autumn 2024
광운 90+



비마랑 조수영(국제학부 23)

KW go+

- 04 **KW Message**
창학 90주년 기념사
- 06 **KW Special**
창학 90주년, 이제 100주년을 향해
- 10 **KW Choice**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선정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12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12 **KW Space**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 재개관
- 14 **KW Talk**
이영 전 장관,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는 청바지 토크쇼
- 16 **KW Culture**
광운 AINES 축제 현장

go far

- 18 **KW People**
광운을 알리는 광운인, 비마랑&로봇
제51대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파동
- 24 **KW Network**
LIG 넥스원 이현수 부사장
이수련 배우
- 28 **KW Prize**
정보융합학부 이재운 학생
소프트웨어학부 권택용 & 정보융합학부 박천수 학생
광운대 아이스하키부

go with

- 30 **KWith**
(주)인사이터 남성전 대표
국제통상학부 동문모임 광무장학회
- 34 **KW News**
주요 단신 & 연구 성과
- 41 **KW Fund**
발전기금 참여안내 & 약정명단



COVER STORY

2024 광운대학교 홍보 광고를
진행한 비마랑 23기 회장 조수
영 학생이 광운소식 123호 표
지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관련기사 18p)

광운 창학 90주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광운의 정신을 기억하고, 광운인의 지성이 모여져
또 다시 세상을 바꾸는 광운의 나비효과가 펼쳐질
광운 100년을 향해, 앞으로 더 씩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운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조 선 영

광운 가족 여러분,
90주년을 시작으로 우리 광운은 새로운 터닝포인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통합(consolidation), 협업(collaboration), 그리고 일치(alignment)

광운 구성원 모두는 광운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통합(consoliation)하고, 경계 없는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실용적인 교육과 인간다운 품격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일치(alignment) 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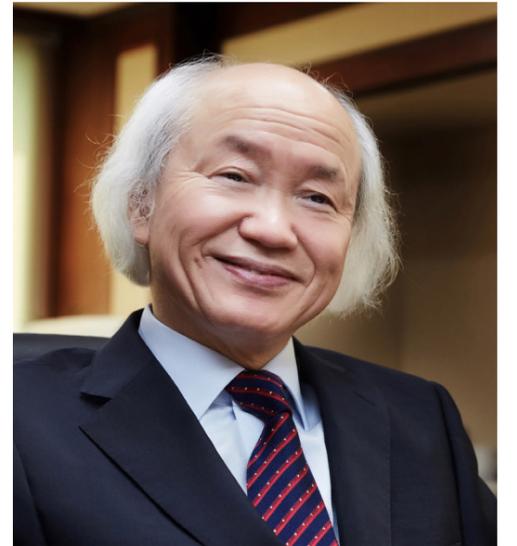
설립자님의 말씀처럼, 사물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제가 반드시 나의 어제와 일치하지 않고, 나의 내일 역시 반드시 누군가의 내일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운은 살아 숨쉬는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광운은 사물처럼 언제나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 가고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2034년, 광운 100주년을 뛰어 넘기 위해선 10개년 계획이 아닌, 20년, 30년, 50년을 내다 봐야만 합니다. 오늘 2024년 9월, 우리 광운은 세계 각종 명문 학교, 또는 국내 최정상 학교 등에 뒤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결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에 의해 길이 만들어 집니다. 광운의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통합하고 협업하여 일치된 목표로 우리 광운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창학 ‘100주년’에 펼쳐질 ‘광운의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광운대학교 총장 천 장 호

광운대학교는 1934년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장래는 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는 선각자 조광운 선생님의 높이신 뜻을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창의·융합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자공학의 요람(搖籃)으로서 전자산업 발전사(發展史)와 함께한 광운은 올해 창학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시작은 미미(微微)하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여 세상을 바꾸고, 기적을 만드는 현상을 나비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비효과가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 현장이 바로 광운대학교입니다. 급격한 학령(學齡)인구 감소와 무한경쟁, 빅블러(Big Blur)-글로컬(Glocal) 시대에서 미래를 꿈꾸며 나비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 실력을 겸비한 인성(人性) 교육, 정직과 성실을 일상화(日常化)하여, 광운의 교육이념인 참되고 실제적이며 적용성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실용주의’와 ‘사랑의 마음’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 온 대학이 광운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학 9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광운의 나비효과’ 곧 ‘광운효과’를 창출하는 원년(元年)으로 삼고자 합니다. 광운대학교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사회에 역동적인 변화이자 광운효과가 실현되는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광운 창학 100주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광운인 모두가 합력(合力)하여 더욱 큰 광운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정진할 때입니다. 앞으로 창학 100주년의 광운대학교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연구의 아이콘이 되어 별처럼 빛나도록 합력하여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개세지재(蓋世之才)라고 합니다. 창의·융합적 방식으로 세상의 유익한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물론 재능은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때 그 진정한 가치(價値)가 발휘됩니다. 광운인은 모두가 개세지재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90년 광운의 독보적인 위상과 우리나라 전자공학·전자산업 분야에서 이룬 광운효과가 그 확신의 바탕입니다.

학생은 내재(內在)된 가능성과 혼(魂)을 깨우고, 직원은 새로운 동기유발의 계기를 만들고, 교수는 창의·융합 교육과 연구로써 합력하여 광운효과를 실현하는 자랑스런 광운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광운’의 힘으로 광운 창학 10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광운의 발전과 광운인 모두의 건승, 건강, 평안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창학 90주년 광운 90+100

이제 100주년을 향해

Part I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는 지난 5월 20일 미래 100년의 웅대한 비상을 향한 광운 창학 90주년 기념행사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과 80주년 기념관에서 총 3부에 걸쳐 개최했다. 1934년 조선무선강습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에 ‘전자공학’ 전공을 개설한 광운대학교는 화도 조광운 박사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인재의 배움터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광운 창학 90주년 기념식은 9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광운의 비상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다.



우리는 광운인, 광운 창학 90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운 창학 90주년 기념식’의 1부에서는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의 기념사,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의 환영사, 화도기념사업회 이향철 상임이사의 설립자 약력보고를 비롯해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의 축하 및 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운 창학 90주년은 광운의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consolidation)과 협업(collaboration), 그리고 일치(alignment)를 바탕으로 이제 100주년을 넘어 그 이후를 계획하고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은 “지난 90년 광운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광운의 100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준 내외 귀빈께 감사드린다”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여 세상을 바꾸고 기적을 만드는 나비효과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광운의 앞날에 펼쳐지길 기원한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학원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조선영 이사장님과 광운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축하를 전한다”면서 “광운학원 산하 각급 기관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실사구시의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설립자인 화도 조광운 박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는 축하 영상을 전달했다.

1부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호치민경제대학교(UeH)의 응웬 동 풍(Nguyen Dong Phong) 이사장에게 명예박사학위(경영학)가 수여된 것이었다. 응웬 동 풍 이사장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호치민경제대학교를 이끌며 베트남 경제발전과 교육에 지대한 공을 세운 베트남 유력인사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광운대학교는 앞으로 ‘글로벌 광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부호(Vu Ho) 주한베트남 대사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눈에 띄었다. 지난 1976년부터 40여년간 광운대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광운분식’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던, 누구보다 광운을 사랑하는 권순단 대표가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이는 인품과 인성을 강조하는 설립자의 창학정신을 계승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서 학생들에게 광운인의 밥심을 전해준 권순단 대표에게 명예학사를 수여함으로 고마움을 전하였다.





Part II



이례적이라, 향후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서울시 노원구갑 고용진 국회의원, 광운대 환경공학과 동문인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 국회의원,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IBK 김성태 행장, 웰컴금융그룹 손종주 회장, 서울문화재단 박상원 이사장, 배우 정준호, 이성림 한국예총 명예회장, 안광찬 한·유엔사친선협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하여 광운학원의 용기있는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또 다른 2부 행사로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라운지에서 펼쳐진 미술전에는 행복을 전하는 ‘이진이’ 작가(작가명 : 아타라,

학교폭력제로, 광운학원과 푸른나무재단이 함께합니다

이번 기념식은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과 함께 하는 2부 행사 ‘학교폭력제로 현장 공표 및 미술전’으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본 행사는 창학 90주년을 맞은 광운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 등의 활동에 광운이 앞장서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은 “진선진미(眞善眞美)한 과학기술도 반드시 인간다운 품격이 깃들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함양하기에 앞서 사랑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설립자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을 뿌리 뽑고 참다운 성인을 기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조선영 이사장과 함께 진행하는 ‘학교폭력제로@광운’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학교폭력제로 현장 공표는 이같은 사회질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푸른나무재단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면서 “광운학원이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학교폭력제로@광운’ 프로젝트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영상을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 학교폭력제로 실천을 위한 다짐으로, 전문과 원칙으로 구성된 총 9가지의 ‘학교폭력제로 현장’이 공표되어 모두가 학교폭력제도를 위한 실천 다짐을 가졌다.

창학 기념일에 통상적인 학교발전 차원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사회 아젠다를 이끌어 가는 모습은 매우



Atara)의 작품이 전시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진이 작가는 한국의 ‘에바 알머슨’이라 불릴 만큼 행복을 전하는 아티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작품명은 ‘행운 가득’으로, 이진이 작가는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을,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을 뜻한다”면서 “행복을 찾아 나선 나의 길에 행운을 찾았다. 행복은 결국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었고, 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행운’을 목에 거니 마음이 평안해진다. 나의 마음이 평안해야 여유가 나오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흐르는 것이었고, 결국 행복의 에너지로 퍼지는 것이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Part III



동문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광운 피크닉

창학 90주년 기념식의 마지막을 장식한 3부는 총동문회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었다. 과거의 광운의 학생과 현재의 광운의 학생들이 80주년 기념관 앞 잔디광장 모여 창학 90주년을 기념하는 ‘광운 피크닉’으로 구성한 것이다. 총학생회는 총동문회의 후원을 받아 피크닉에 참가한 학생들과 내외 귀빈들에게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등 각종 먹을거리를 나눠주며 구성원 모두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이를 통해 광운 선후배는 서로 함께하면서 광운 네트워크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행사의 대미는 울산 리홍재 서예가가 맡았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사전 행사에서 타목 행사를 한 바 있는 리홍재 서예가는 광운대학교 화도관 앞에 준비된 가로 15미터, 세로 3미터 규모의 대형 천에 ‘광운 창학 90주년’이라는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이어 중앙동아리 ‘노을’과 ‘14프렛’의 공연을 끝으로 3부 행사가 마무리됐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비효과, 광운 창학 90주년 기념식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가 그동안 이루어온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말이다. 이제 광운은 100주년이라는 더욱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창학 90주년 기념식을 통해 찬란한 시작을 알렸으며 남은 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광운의 성과는 더해져 갈 것이다. ‘나비효과는 곧 광운효과’라는 말을 보여주는 광운 창학 100주년을 기대해 본다.

광운대학교의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는 대학교육



미래의 광운인을 위한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노력, 현재의 광운인을 융합교육의 인재로 양성하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혁신 실천. 이렇듯 광운대학교는 그 명성에 걸맞은 '광운만의 대학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광운대학교의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는 광운만의 대학교육 성과를 되짚어 본다.

12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12

년 연속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구현하다

광운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유형 I)'에 12년(2013~2024년) 연속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대학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입학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협력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며,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강화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 선발 기능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광운대학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이후 1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다. 그동안 광운대학교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운영 내실화 및 평가신뢰도 제고, 입학사정관과 입학 부서 관계자 교육·훈련체계 내실화, 대입전형 개선 관련 연구 진행,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고교 및 사·도 교육청 협의체 구축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선정



HUSS

 선정

글로벌·공생 융합교육 인재를 양성하다

광운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에 광운대 주관 컨소시엄이 신규 선정되었다. 광운대 외 4개 대학(광운대,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올해 4월 사업계획서 제출 후 서면검토와 5월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글로벌·공생 분야를 주제로 향후 3년간(2024 ~ 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광운대 주관 글로벌·공생 융합교육 컨소시엄은 그린,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리소스 코디네이터와 산업·도시 지속가능성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문 소양과 함께 분석, 소통, 글로벌 자원 및 지속가능성 역량을 함양하는 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운대에서는 국제통상학부, 국제학부, 행정학과, 법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정보융합학부가 참여한다.

해당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과 성과확산 등을 추진하며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사업에 참가한 대학들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 교과목과 직무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전공과 관계 없이 진로를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S

 등급

교육혁신을 통해 광운교육을 구축하다

광운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고 광운의 교육혁신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이다. 현재 총 117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광운대는 이번 평가로 약 41.4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총 77.9억 원을 확보했다. 광운대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다전공 이수 의무화, 마이크로 전공 신설, 학생 설계 융합전공 신설 추진을 통해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형1 자율전공학부 신설을 통해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전체 학생을 위한 전주기적 미래 설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운대 천장호 총장은 "이번 평가는 광운대가 교육환경 및 미래 산업변화에 대비한 창의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광운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 구축 및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는 대학과 지역을 잇는 스포츠 문화 LINK가 될 것입니다!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8월 재개관했다. 1998년 우리나라 대학 중 최초로 개관된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는 연간 12만명이 이용하는 강북 지역 겨울스포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 시설의 노후화를 없애고 다시 대학과 지역을 잇는 스포츠 문화 LINK로 거듭날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장의 리뉴얼 소식을 전한다.



아이스링크장



동해문화예술관



동해문화예술관 이용 안내

예약문의

• 대소극장 : 02-940-8614 • 아이스링크 : 02-909-3114

운영시간

• 대소극장 : 사전 예약을 통해 대관 시간 조율

• 아이스링크 : 오전 6시부터 익일 1시까지(연중 무휴)

※ 기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동해문화예술관
조선애 관장

▣ 이번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 리뉴얼에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번 공사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펜스 및 빙면 바닥 교체, 아이스링크 고무바닥재 교체, 내부 도장 등을 통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본교 관련 수업, 아이스하키부 연습과 시합, 인근 초중고 수업 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아이스링크장을 포함, 앞으로 동해문화예술관의 운영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해문화예술관에는 2,005석의 대극장과 398석의 소극장,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가 있습니다. 대극장과 소극장은 교내의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스링크에서는 아이스하키와 스케이팅, 피겨 등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동해문화예술관은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과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장의 시작

이번 아이스링크 재개관 행사에는 조무성 광운대학교 초대총장,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천장호 총장 및 교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동해문화예술관의 시작이 1991년 5월 조무성 광운대학교 초대 총장이 기부한 부지에 착공하여 1994년 9월 개관한 것이기에 조무성 초대총장의 행사 참석은 이번 재개관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동해문화예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1998년 6월 첫선을 보인 아이스링크는 연면적 1,660평 규모의 국제규격으로 개장한 이래 본교 아이스하키부의 기량 향상과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 지역 문화 및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현재까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새롭게 리뉴얼된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장

리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아이스링크 펜스를 국제규격의 공인된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모래로 된 빙면 바닥을 콘크리트 공법으로 변경하여 냉장효율을 제고했다. 또, 장기간 사용으로 손상된 아이스링크 고무바닥 교체, 아이스링크 천장 및 내부 도장, 로비 및 출입구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문 선배와 함께 하는
청바지 토크쇼

청년이 바라는 지금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수학과 89)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지역구, 환경공학과 10)

본문은 토크쇼 질의응답을 발췌·축약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토크쇼 전편이 궁금하신 분은 QR코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담지 못한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추천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고,
가고 싶은 기업에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이영 전 장관 직장인으로 있어 봤고, 벤처기업도 운영해 봤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경험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대기업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분명 좋습니다. 임금의 격차도 있고 복지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대기업에 맞는 스타일인가를 묻는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가장 견디지 못했던 것이 '나인 투 식스'였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정말 8시간 충실히 일을 할 테니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을 건의했다가 바로 거절당한 후 미련없이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들 대기업이 좋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일종의 짜여진 틀에서 소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그 중 어느 한 부분만 담당하여 정작 스마트폰이 어떻게 구동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제품을 모두 관장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신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즉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업 스타일'을 찾아 보세요. '대기업에 맞는지', '중소기업에 맞는지' 아니면 벤처기업 창업과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제가 장관 시절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 정책 중의 하나가 '잡매칭'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임금과 복지가 다르잖아요'라고 하면 그건 분명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외적인 임금격차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업 스타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적 고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원하는 곳도 많아요. 많이 경험해 보시고 꼭 자신만의 기업 스타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문 선배와 함께 하는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 토크쇼'가 지난 5월 30일 본교 새빛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광운대학교 수학과(89학번)를 졸업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이영 전 장관)과 환경공학과(10학번)를 졸업한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 김용태 국회의원(이하 김용태 의원)이 참석하여 자신의 삶을 녹인 강연과 후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날 질의응답에서 나온 질문과 답을 모아 광운인의 현재의 고민은 무엇이고, 이를 선배들은 어떠한 답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전공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길이 내게 맞는지, 근본적으로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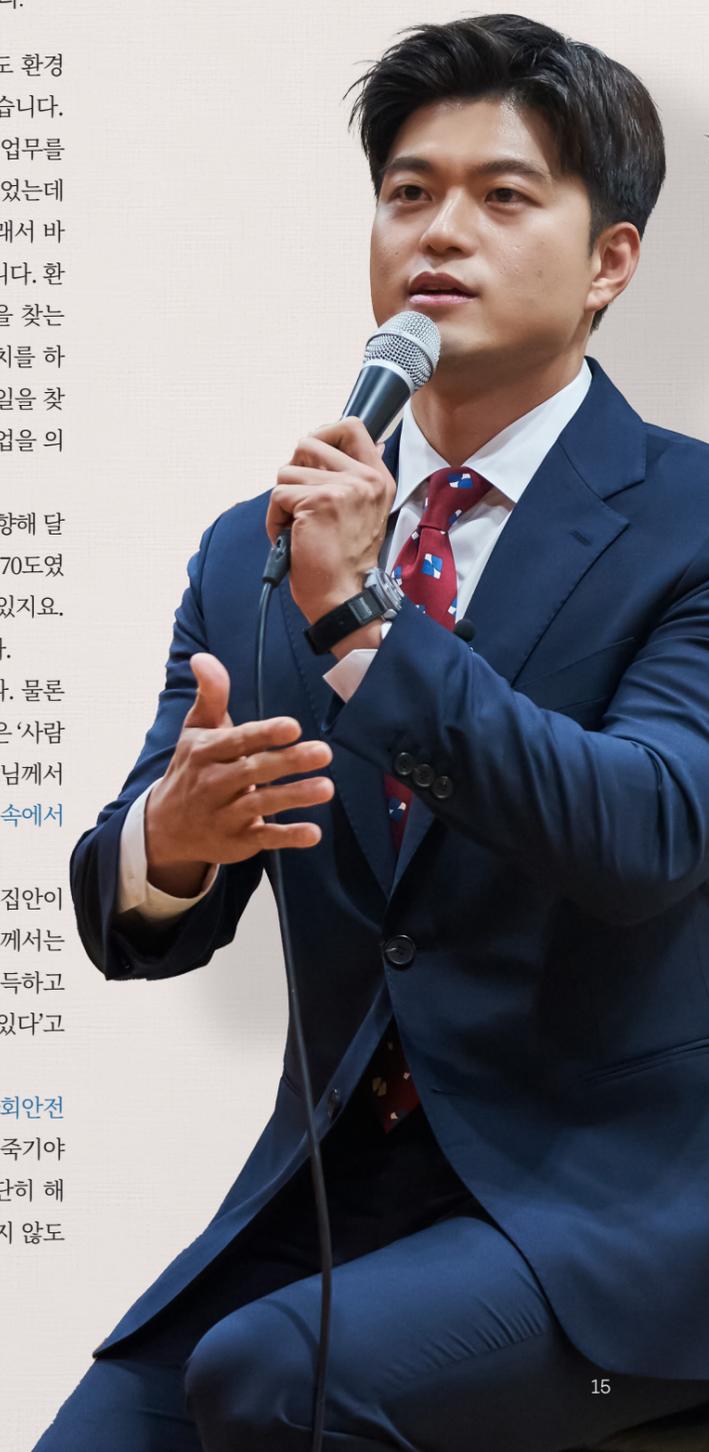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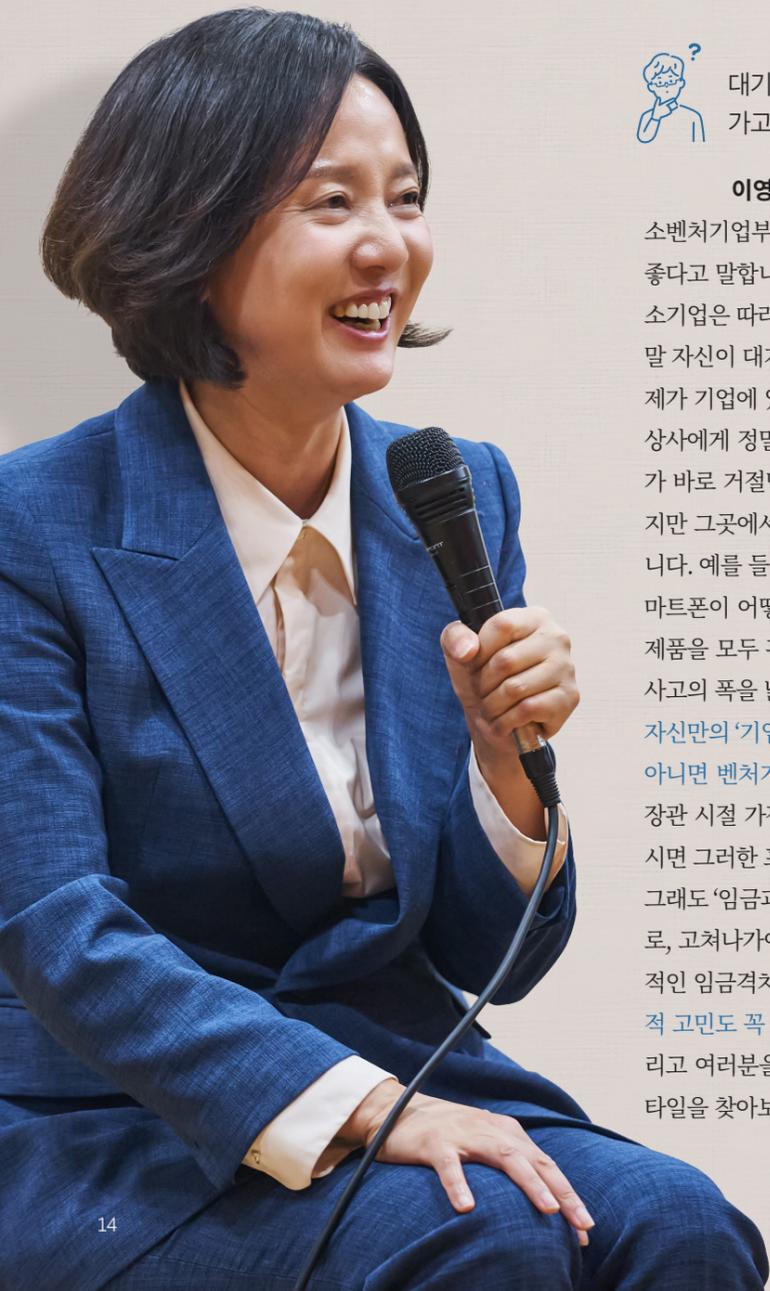
김용태 의원 제 동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도 환경공학과를 나와서 처음에는 모 식품회사 안전관리 업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바로 나오고 어느 기초단체 오수처리장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리장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이 자신의 적성과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시 공부하여 지금은 건설시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공학과 출신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어릴 적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정말 복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찾아 보세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일이 꼭 직업을 의미하는 '명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사'이어도 좋습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100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를 내릴 때처럼, 물이 60도나 70도였을 때 더욱 좋을 때도 있습니다. 목욕물 같은 것은 40도가 딱 좋을 수도 있지요. 이렇듯 모두가 100도라는 최고의 임계점에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강연에서는 '실패를 해도 좋다 도전을 해보라'라고들 합니다. 물론 저의 대답도 같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각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배님께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2번의 낙선 후 3번째 도전 끝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도 평범한 집안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서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격렬히 반대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으로 받는 리스크보다 '도전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했기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번의 도전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설마 죽기야 하겠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리스크 감내 정도를 조금 더 단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정말 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바지 토크쇼 영상





지난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2024 광운대학교 축제가 개최되었다. “지금이야, 우리의 소원이 이뤄질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운인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잊지 못한 추억을 선사한 ‘2024 광운대학교 AINES : 소원’의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지금이야,
우리들의 소원이
이뤄질 시간**

어떤 추억을 가지고 싶은지 몰라 다 준비했어~

제51대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파동’이 준비한 축제의 핵심은 학우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동아리 축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활동의 추억’, 푸드트럭에서 즐기는 ‘맛의 추억’,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 상품을 받는 ‘선물의 추억’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남기는 ‘한 장의 추억’ 그리고 인기 가수들과 함께 합성을 마음껏 분출하는 ‘젊음의 추억’을 선사하였다.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시작되는 곳, 바로 광운이야~

대학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가수 라인업은 그야말로 역대급을 자랑했다. 첫째 날은 밤양갱으로 유명한 비비와 김수영, 둘째 날에는 실리카겔, 창모, 제너더질라가 출연했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날에는 지코, 에스파, 다비치가 함께해 노천극장 일대를 합성으로 뒤덮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광운인의 합성은 더욱 넓게 퍼져나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광운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임을 말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광운이라는 두 글자를 추억하며

‘광운’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모두가 하나가 된 2024 광운대학교 축제 AINES. 축제 네이밍까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갖는 등 하나에서 열까지 ‘광운인을 위한, 광운인들에 의한, 광운인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쌓여 광운인은 광운을 더욱 추억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광운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자부심을 느낄 내일의 광운인을 기대해 본다.



KWANGWOON People 1 광운을 알리는 광운인

interviewee

비마랑 23기 회장 **조수영**(국제학부 23)
로봇 17기 단장 **이명진**(로봇학부 22)



빛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

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광운을

우리는 대외국제처 홍보팀 소속 공식 홍보대사입니다

조수영 안녕하세요. 저는 비마랑 23기 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학부 23학번 조수영입니다. 비마랑에서 회장단과 미디어팀의 소셜미디어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마랑은 ‘광운대학교의 상징’인 ‘비마’와 ‘함께하다’라는 뜻인 ‘랑’이 합쳐진 말로 광운대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 학교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외국제처 홍보팀 소속 단체입니다.

스튜디오 촬영물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광운대학교의 홍보물에 모델로 등장하기도 하며 입학식, 학위수여식, 90주년 기념식과 같은 여러 학교 행사에서 의전 활동을 하고 있고, 교내 행사를 개최하여 재학생들에게 애교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대학박람회, SNS를 통하여 광운대학교의 다양한 모습과 정보를 알려주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명진 저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빛의 단장 이명진입니다. 로빛은 로봇 기술을 통해 광운대학교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성과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로빛의 주된 역할은 로봇 기술의 선도자로서 광운대학교의 연구력과 실습 중심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광운대학교가 로봇 기술 분야에서의 강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각 프로젝트와 대회 준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2024 광운대학교 광고 촬영현장!

이번에는 비마랑과 로빛의 대표 학생들이 뭉쳤다.

대학의 얼굴로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비마랑과 광운의 기술력을 세상에 알리는 앞장서고 있는 로빛.

광운을 알리는데 진심이 이들에게 광운의 자랑을 들어 보았다.

올해는 비마랑과 로빛이 함께 광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조수영 올해에는 비마랑이 단체로 촬영하는 스튜디오 촬영 이외에도 광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위해 로빛 단장님과 함께 추가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광운대학교를 광고하는 홍보물에 비마랑의 단복을 입고 비마랑의 대표로, 또 광운대학교 학생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촬영은 여러 시안을 참고해 포즈를 취하며 촬영한 것부터, 광운대학교의 마스코트인 우니의 인형과 로빛에서 제작한 로봇을 소품으로 함께 촬영한 것까지 다양한 것이 촬영되었는데요. 촬영해주신 실장님과 같이 동행해 주신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촬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으쌰으쌰 해 주셔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진 비마랑과 달리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비마랑 회장님이 잘 리드해 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우리의 활동과 성과를 영상으로 담아내며, 학교의 우수한 로봇 기술과 열정적인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촬영하는 모든 순간이 매우 특별했고, 이를 통해 로빛이 광운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추억과 경력을 동시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진 _ 저는 어릴 때부터 로봇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봇에 가입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 왔고 광운대학교에 입학 하면서 대학생 신분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팀원들과 협력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올해 국제 로봇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수개월 간 밤낮으로 준비하면서 겪었던 여러 난관들이 떠오르며 감격스러웠고, 팀원들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회장에서는 긴장도 됐지만, 저희 로봇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미션을 수행할 때의 그 짜릿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조수영 _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갔던 수시박람회 광운대학교 부스를 통해 비마랑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부스에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명함도 챙겨주셨습니다. 이때의 비마랑 선배님들과 좋은 기억 덕분에 광운대학교에 더욱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광운에 입학하여 이제는 제가 비마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활동도 올해 수시박람회 때인데요. 광운대학교 부스에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다 보니 정신도 없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쁜 이유가 광운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수험생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며 그렇게 생각하니, 괜스리 제가 다 뿌듯해졌습니다. 수험생 때의 제 모습도 생각나기도 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풍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광운인들을 만나기 위해 광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명진 _ 광운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실습 중심의 교육과 연구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학부생 시절 실제로 손을 움직여 연구하고 개발하는 경험은 매우 드물고 소중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는 미래의 광운인들에게도 큰 매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광운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추천드립니다.

조수영 _ 아울러 과학기술 교육의 대상은 반드시 인간의 품격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설립자 조광운 박사님의 말씀을 따라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광운대학교의 선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비마랑도 지난 광운대학교 축제 '아이네스' 부스에서 모은 모금액을 '학교폭력제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계신 푸른나무재단에 기부하였는데요. 이렇듯 긍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의 가치를 광운학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광운의 멋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광운인으로서 더욱 성장하는 저희 모습도 기대해 주세요

조수영 _ 축제때 푸른나무재단 모금 기부와 같이 비마랑이 주체가 되어 광운대학교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외에도 교내외로 항상 활발히 활동하며 재학생분들의 애교심 향상과 광운대학교 홍보를 위해 발로 뛴 예정이니 광운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비마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비마랑을 통해 가지게 된 홍보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진로를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비마랑이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많은 경험들이 제게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도전할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진 _ 단체장으로서 앞으로도 로봇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졸업 후에는 로봇 공학자로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로봇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Brief Interview

광운 홍보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대외국제처 홍보팀 소속 학생단체가 궁금합니다

홍보팀 소속 학생단체는 홍보대사 비마랑과 로봇게임단 로봇, 광운영상방송센터 KWBC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학생 자치 기구가 아닌 광운대학교와 재학생, 동문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팀에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광운대학교 홍보 광고의 콘셉트는 무엇입니까?

총 3가지 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광운대학교 새로운 100년의 꿈을 이룬다' 편은 창학 90주년을 맞은 광운대가 새로운 100년

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광운대의 상징 비마를 메인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첨단 학문의 중심 광운대학교' 편은 광운대의 강점인 AI 기반의 반도체 및 로봇 빅데이터 분야를 반도체 배경 이미지와 함께 표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로봇과 비마랑 학생을 모델로 기용한 '광운효과의 주인공이 되다' 편은 나비의 날개짓이 훗날 태풍이 되는 나비효과처럼, 광운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으로 인큐베이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홍보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운대학교는 구성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대학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우리 광운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푸른나무재단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제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 중에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재현 대외국제처장 >>

올해는 총학생회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준세 회장 올해는 광운대학교 창학 90주년을 맞아 1학기를 바쁘게 지냈습니다. 총동문회와 함께한 90주년 행사와 더불어 새로배움터, 광운대학교 축제 'AINES: 소원 등'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회 행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올해는 행사들의 역량을 더 키워보자는 것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학우들의 피드백을 보완할 점으로 잘 반영하여 앞으로 있을 행사는 더욱 완벽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채 부회장 올해 2학기에는 매년 개최되는 광운대학교만의 체육대회 연춘체전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2학기의 활동은 '잔잔함 속에 깊은 일렁임; 파동'이라는 저희 캐피라이즈에 맞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학생회 회칙 및 세칙 개정 작업, 학식 환경 개선, 휴게실 개선 사업, 광운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브랜딩 사업 등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총학생회라는 울창한 나무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김준세 회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사회는 사실상 윗 학번 세대와는 단절되고 모든 것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학생회 비대위에서 학생회라는 묘목을 심었다면 올해는 그 묘목이 잘 자라도록 물과 양분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첫해입니다. 향후 몇 년간 이렇게 노력하면 다시 우리 학생회는 울창한 나무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고 빛나지 않더라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총학생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자, "빛나진 않지만 튼튼한 기반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제 삶의 모토기도 합니다.

잔잔함 속에 깊은 일렁임을 주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제51대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김준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 + 부회장 **김은채**(화학과 21)

광운답게, 광운인답게 빛나는 미래를 꿈꿔보십시오

김준세 회장 광운대학교는 학우 한분 한분의 꿈이 정말 큰 인재들의 학교입니다. 특히 제가 재학 중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추천을 하자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정말 각 분야에서 알아주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방송, 디자인, 개발, 마케팅, 광고기획 등 다방면으로 능력치가 좋은 인재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있기에 입학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채 부회장 교수님과 학생 간의 사이가 가장 화목한 과를 꼽으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화학과입니다. 이번 월계축전에서 진행했던 '교수네트'의 활영도 교수님과 학생 모두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을 만큼 끈끈한 사이를 자랑합니다. 화학과를 포함한 모든 과의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해주시는 만큼, 많은 후배님들이 이곳 광운대학교에서 꿈을 펼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김준세 회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며, 광운인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학생회라는 묘목을 제대로 키우는 시기입니다!" 광운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회장 김준세 학생의 말이다. 작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라진 학생회라는 묘목을 심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묘목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양분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면서 말이다. 제51대 총학생회를 '파동'이라 명명한 것도 학우들에게 물처럼 잔잔하게 스며들면서 깊은 일렁임을 남기고 싶은 이유라고 설명하는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을 만나보았다.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K-방산을 선도하는 기업 **LIG넥스원**에서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해외사업부문장 **이현수 부사장**입니다. 저희 LIG넥스원은 광운학원과 지난 해 MOU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인재들과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기대하며 광운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K-방위사업을 선도하는 LIG넥스원이 KW-방위사업 인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방산수출 분야의 독보적인 선두주자, LIG넥스원

방위산업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텐데, 방위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전자·장갑차, 군함, 항공기, 미사일 등 軍유지와 전쟁에 대비한 물자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불모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전히 미개척된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넥스원은 ‘지속적인 성장의 답은 해외수출 확대’라는 확고한 의지와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전문인력 확보, 전문 조직 신설 등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2006년 무전기 수출을 첫 시작으로 현지사무소를 개소하며 발빠르게 해외시장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에 각각 함대함 유도무기(해성)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신궁)를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말 성사된 루마니아

신궁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유도무기 최초로 NATO 국가 진입에 성공하는 등 해외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운학원과 국방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먼저 올해 학원 창립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에 LIG넥스원이 함께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 체결한 광운학원의 협약은 LIG넥스원과 광운학원 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것으로 우수인재 육성과 산학협력 강화 및 신기술 공동개발 등을 주요 협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에서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광운대학교는 국내 유수의 대학교 중 최초로 방위사업학과 개설 및 산하의 방위사업연구소를 통해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적인 연구 경쟁력과 우수한 방위사업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방위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을 통한 국방 무인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국방 AI로봇융합학과 및 국방기술경영학과의 설치를 통해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방위산업 관련 학과들은 국방기술 및 방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실무형 인재를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약 400명에 달하는 졸업생 및 수료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현장에



LIG넥스원 이현수 부사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거쳐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국방중기계획 총괄, 국제방산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고, 2017년에 LIG넥스원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해외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2023년 12월 광운학원과 MOU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광운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의 업무 수행에 상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LIG넥스원이 수출 불모지인 K-방산 분야에서 10여년 간의 투자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성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운대학교도 학계에서 불모지였던 방위사업 관련 학과를 최초 개설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및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광운학원과 방위산업 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운과 LIG넥스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K-방산의 미래

현재 당사에는 많은 광운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인을 참빛인재라고 하죠. 이는 참사람과 빛사람을 함께 아우르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실천공행의 생활화를 통해 늘 부지런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 깊게 탐구하며, 동료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미래에 저희 LIG넥스원 구성원이 되고 싶은 광운인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다면 ‘개방과 긍정의 자세로 끊임없는

혁신 추구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기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event)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해석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응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겠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석과 대응, 결과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 LIG넥스원은 많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에 진입하지 않았던 신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LIG넥스원은 최근 몇 년 동안은 매년 다수의 신규 시장을 확보하여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입하여 LIG넥스원과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광운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나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안녕하세요. 현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우 이수련입니다. 이렇게 광운소식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 1호 여성 공채 대통령 경호관이었던 경력을 담은 제 책의 제목처럼 「청와대를 떠난 배우」로 여러분께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경호원에서 배우로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 광운인이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노력이 모이고
쌓여지면
멋진 결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도이모 10월
변자이
의말들 조
1대50
!그다압뜻 볼

‘배우’와 ‘배움’의 병행,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배우가 된 이유를 한 마리로 요약하자면 “죽기 전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로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근접에서 경호하는 경호관으로서의 삶도 멋지고 의미 있었지만,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단순히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닌, 배역의 다양한 감정과 인생의 굴곡을 직접 느끼고 보는 이에게까지 공감이가도록 표현하는 일이었고, 또 연기를 하면서 내 안에 몰랐던 다양한 모습을 끄집어 내는 일하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던 중 대통령 경호관으로서의 했던 일들과 쌓아온 10년의 경력을 인생의 일부로 단아두기에는 그 전문성과 노하우가 아까웠어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제가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문분야로 발전시키고자 국제안보학 석사에 이어 방위사업학 박사과정까지 이르렀네요. 여러모로 배우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과정을 밟아가는 단계입니다.

‘광운’은 방위사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최고의 대학’

실제로 권총을 소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다년간 수행하다 보니 K-방산업체들에서 자체개발한 무기의 활용과 홍보에 저를 초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DX, ADEX 등의 행사에서도 외부들에게 K-방산무기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전활용 뿐 아니라 전반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싶었고,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국내에서 방위사업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기관인 광운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지요.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공부하는 과

정이다 보니 평일 야간, 주말 수업과 온·오프라인 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 간 교류과정도 있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수강할 수 있지요. 공학 분야와 연계과정을 통해 AI, 로봇 등 방산융합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교수님은 물론 방위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원우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광운대학교만의 강점입니다.

‘다양한 미래’가 펼쳐지는 ‘열린 결말’을 기대합니다!

제가 경호관 출신이니 사격에 비유한다면 총을 쏠 때, 목표물인 타깃보다 눈앞에 보이는 조준선 안 가능자, 가능쇠를 명확히 볼 때 명중에 가까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제게 주어지는 배역들에 충실하다 보면 오스카 여우주연상도 받고 눈앞에 학과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방위사업 분야에서도 저만이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생은 목표한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현재가 모이고 쌓여 더 재미있는 미래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즉 저의 인생은 열린 결말인 것입니다.

이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고 싶은 일, 그리는 미래가 명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게요. 그래도 됩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금 현재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뭐라도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 저를 훌쩍 뛰어다 더 나은 내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막막하고 불안하고 고민되는 현재의 순간들 역시 결국에는 여러분을 어떤 미래로 실어다 줄 거예요. 지금은 모호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겪어낸 저의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담입니다. 광운인 모두 화이팅!

이수련 배우는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여성1호 경호관(2004-2013) 출신으로서 이화여대 영문학사, 연세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강철비 2(2020), TVN 슬픈도시여자들 시즌2(2022) 등에 출연했으며, 특히 2023년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 섬>에 이어 올해 웨이브의 <사상검증구역:더 커뮤니티>라는 작품으로 청룡시리즈 어워즈 예능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광운 1st

No.1 광운을
이어가는
광운인들의
수상 스토리



409 대 1 경쟁률을 뚫고 대상 수상

이재윤 정보융합학부 2학년

제3회 '미래와소프트웨어' 공모전 대상

재단법인 '미래와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인 '빅데이터 활용 미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해커톤'에서 이재윤(광운대)·김정우(아주대)·양시건(경희대 대학원)·전은아(덕성여대)팀이 409 대 1 경쟁률을 뚫고 대상(1위)을 수상했다. 이들은 '구름장애 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고령 환자의 의사소통 개선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차지했다. 구름장애는 뇌졸중 등 환자들이 발생기관에 문제가 생겨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구름장애 환자가 증가세다. 이재윤 학생은 김형국 교수(전자융합공학과)의 학부연구생 지도를 통해 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출품 모델은 구름장애 환자를 위한 음성인식 복합 인공지능 모델 '경청'으로, 구름장애 환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청'은 구름장애 음성의 판별과 인식을 위해 총 5개의 하위 모델을 융합한 결정 기반 복합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은 기존의 모델과 달리 구름장애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합한 음성인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윤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노인 구름환자는 사람과의 소통, 나아가 기술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 기술적 제안을 통해 앞으로 노인과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많이 이루어지며, 진보한 기술에서 나아가 사람 곁에 있는 따뜻한 기술을 만들어 가는 우리, 그리고 미래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제출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해커톤 대회에서 수상

권택용 소프트웨어학부 3학년
박천수 정보융합학부 3학년

'2024 시스코 이노베이션 챌린지' 준우승

광운대학교 권택용(소프트웨어학부 3학년) 학생과 박천수(정보융합학부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지구야 사랑해' 팀이 '2024 시스코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시스코의 센서링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탄소배출 기록관리시스템'을 주제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2024 시스코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아이디어톤과 제출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보는 해커톤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2월 중순 아이디어톤 심사를 통해 선발된 3개 부문 13개 아이디어 수상팀 중 10개 팀이 4월 4일 광운대학교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열린 해커톤 대회에 참여한 결과, 최종 6개 팀이 선발됐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5층 시스코 코리아에서 열렸다. 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인 '무궁유교팀'은 유아 행동패턴, 인지 개발 솔루션의 유아용IoT 팔찌를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챌린지의 해커톤 대회가 열린 광운대-시스코 이노베이션 센터는 미래 디지털 혁신을 이끌 인재와 에코 파트너 양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및 학생들과 함께 혁신적인 사례를 개발하는 국내 대학 최초이자 유일의 개방형 오픈 공간이다.



2019년부터 대회 5연패 달성

**광운대
아이스하키부**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학부 아이스하키 우승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지난 2월 23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진행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학부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여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경희대학교에 5 대 3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대회(2021년 대회는 코로나19로 미개최) 우승에 이어 본 대회 5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광운대 아이스하키부 김영조 감독은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면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릉까지 오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학교 관계자분들, 학부모님들, 기자단분들 등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Insightter

Big Data & AI



남들에게는 없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

interviewee

(주)인사이터 대표이사
남성전 동문(영어산업학과 08)

‘스티브 잡스, 그도 문과생이었어요’ 10년 전 빅데이터 기반 창업을 준비하던 남성전 동문(이하 남성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런 그가 이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기업인 인사이터 대표로서 다시 모교를 찾았다. 학생 시절 자신의 계획에 지원에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발전기금을 전하면서 말이다. ‘남들에게는 없는 우리 광운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남성전 대표를 만나 그만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도전에 용기를 실어준 곳, 바로 ‘광운’입니다!

남성전 대표가 창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13년 미국 교환학생 시절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미국은 빅데이터가 엄청 주목을 받던 시기였고, 남 대표도 개인의 감각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빅데이터 서적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관련 회사 취직도 경력직 또는 석박사 출신만 가능했지요. 그래서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는 이 일은 광운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창업 학점 인정,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 창업 아이템 개선 사항 도출 및 컨설팅, 창업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을 받았고, 작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맘이 궁금할 때, ‘아맘때’가 있습니다!

그런 남성전 대표가 창업한 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터라는 기업. 초기 인사이터의 사업 모델은 SNS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 노하우들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연결이 된다.

“한동안 인공지능 모델 개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주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인 AI 기반 아동 심리 검사 및 상담 서비스 아맘때(아이의 맘이 궁금할 때를 줄인 말)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맘때는 TV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에도 제공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맘때는 현재 아동 심리의 한계인 비싼 가격, 상담사별 상담 품질의 격차, 번거로운 절차 등을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개인,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사적 검사 기법 중, HTP(Home, Tree, People) 그림 검사가 있는데, 이러한 그림 검사를 진행하고 해석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담사의 수준에 따른 상담 퀄리티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맘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의 그림을 부모가 찍어서 앱에 올리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아동의 그림에서 객체(예 : 집 : 창문, 지붕, 문 등)를 인식하여,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가장 적절한 해석을 논문과 전문 서적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5배 이상 빠른 아

동 심리 해석 결과 보고서 작성,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불안함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능력, 창업의 ‘첫 번째 역량’

이러한 경영성과가 발전기금을 하게 된 계기인지에 대한 질문에 남성전 대표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이번 기부는 성공해서 한 기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광운이 자신에게 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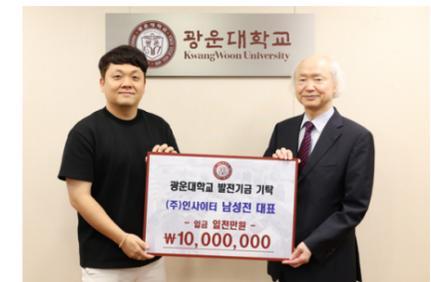
“창업한 첫 번째 회사를 이렇게 10년 이상 유지하고 성장해온 것에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광운대학교 교와 학과의 교수님들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기부가 은혜를 갚는 저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발성의 행사도 필요하지만 ‘광운 네트워킹’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니 남성전 대표는 자신이 생각하는 창업은 ‘오늘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가?’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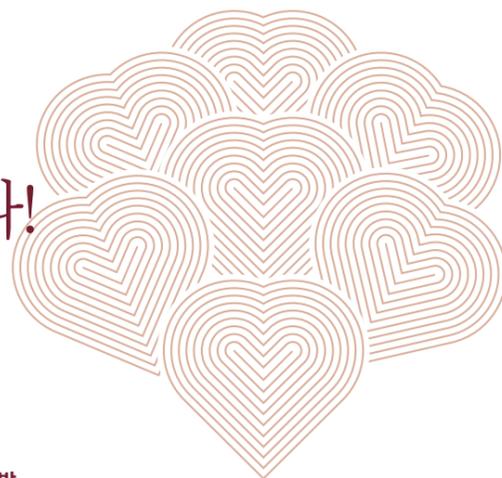
“처음 사업을 하면 3일 앞이 보이지 않고, 그게 일주일, 한 달, 일 년 등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늘이기 위해서는 매출, 사람, 시스템 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 창업은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함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창업자의 첫 번째 역량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덧붙여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것’을 조언했다. “사서 고생하는 여행도 가고, 사회를 위한 건전한 비판도 하며, 따뜻한 시선을 주변에 두고, 사랑과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남들에게는 없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광운 화이팅!”



문과생은 창업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혁신의 광운 나비효과를 실현한 (주)인사이터 대표 남성전 동문님은 지난 2019년 4,500만 원 상당의 영어교육프로그램 현물 기부에 이어, 올해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여 특별한 모교사랑을 실천합니다!



interviewee

광무장학회 회장 윤철민 동문(국제통상학부 96)

“제가 광무장학회의 회장인 것은 1호 회원이기 때문이지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전기금에 대한 인터뷰 요청에 광무장학회 윤철민 동문의 대답이다. 광무장학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회인임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평범하지만 모교 및 학과에 대한 사랑만은 절대 평범하지 않는 광무장학회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하고 위대한 여정

Q 먼저 광무장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광무장학회는 국제통상학부의 옛 명칭인 무역학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광운대 무역학과 장학회의 약자이며, 2019년 1월 창립되어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창립 시 4명이었던 장학회 회원은 이후 뜻을 함께하는 선후배님들의 참여로 기금회원 25명, 연간 수입기금액 1,500만 원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광무장학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회인들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작은 마음과 행위로서 국제통상학부 모든 후배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이러한 수혜자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장학회의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Q 기금 모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회에 차원에서 전달한 1천만 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무장학회원들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 장학회 자체도 큰 성공을 이룬 소수의 분들이 큰 금액을 ‘채척’ 하시면서 재정 자립도를 유지해 가는 그러한 모임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반복된 일과를 수행하고 저녁에는 하루의 노동과 피로에 시달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회인들이고 연령대 또한 사회 초년생 급부터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모금은 1인당 5만 원씩 월 1회 매월 1일에 자동이체 또는 지정 장학회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꽤나 특별하고 위대한 여정에 선후배분들이 가까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면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국제통상학부에서 큰 행사를 기획해 줘서 그 행사를 기점으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제통상학부 동문모임 <광무장학회>는 본교에 2023년 1천만 원 기부에 이어, 올해 1천만 원 추가 기부하여 총 2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자 뜻에 따라 국제통상학부 발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뜻깊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배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후배에게 전하는 내리사랑

Q 국제통상학부의 후배사랑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A 저희는 이를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제통상학부 이전 무역학과였을 때, 특히나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1학년 때 자기 돈 내고 밥 먹는 새내기’는 바보다’라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을 정도이니까요. 주머니 사정이 알팍한 1, 2학년 때는 오가며 마주치는 선배들에게 “저희 국제통상학부 신입생들인데 술 사먹게 천원만 주세요”라는 게 문화였고 복학생 포함 선배님들은 기꺼이 처음 보는 그 후배들에게 천원짜리 한장 내어주시는 게 아주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지금 시절이면 큰일나겠지요. 하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선후배들이 지금의 광무장학회를 지탱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한 낭만의 시절을 보냈던 우리들이 막연하게 언젠가 우리가 교수님들 연배가 되었을 때쯤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내적으로는 장학회 회원 수 유지 및 확장으로 연간 2천만 원 정도, 약 열 명의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꾸준히 줄 수 있는 장학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일부 실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광무장학회 주도로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제조, 금융, 전문직 등 각 분야별 선배들을 모시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돕는 자리라던가 4학년들 대상으로는 면접 잘 보는 법, 진로 고민 등을 교수님들 뿐 아니라 사회에서 현직으로 있는 선배들과 교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Q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사회에서 광운대학교의 학교 위상과 후배들의 인식은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의 지식을 보유하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갖춘 인재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남들과 견주어 비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을 맘껏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인의 기본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놀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모아 여러분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국제통상학부 후배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1 김형국 교수 연구팀 백승엽 & 정동기 학생 KJCCS 2024 국제 학술대회 'Best Paper Award' 수상



본교 전자융합공학과 김형국 교수 연구팀의 백승엽 학생, 정동기 학생이 지난 1월 29일부터 3일간 일본 베틀 카메노이 호텔에서 개최한 '10th Anniversary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Complex Communication Sciences (KJCCS 2024)' 국제 학술대회에서 'Haptic Texture Recognition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Object Surface Material Using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라는 주제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2 이지훈 교수 연구팀 출신 루투자 박사 스위스 폴 셰러 연구소(PSI) 연구원 임용



본교 전자공학과 이지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루투자 박사(지도교수: 이지훈)가 2024년 5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스위스 폴 셰러 연구소(Paul Scherrer Institut, PSI) 연구원으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물리학자 Paul Scherrer(폴 셰러)의 이름을 딴 폴 셰러 연구소(PSI)는 스위스의 자연 및 공학 과학을 위한 연방 연구기관이다. 루투자 박사는 "이지훈 지도교수님과 동료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광운대와 폴 셰러 연방연구소의 자매결연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3 채철균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 추대



본교 건축학과 채철균 교수가 한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2024년 명예건축가로 추대되었다. 한림원이나 예술원의 종신회원과 같이 명예건축가는 건축가로서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다. 채철균

교수는 "명예건축가 추대는 건축가로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물심양면의 지원과 결을 내어 주신 건축계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경천애인하여 건축문화 향상과 후학양성을 위하여 더욱 전념하겠다"고 추대 소감을 밝혔다.

4 하태준 교수 연구팀 김명현 & 박세룡 연구원 2024 ICERE 국제 학술대회 '최우수 발표상' 수상



본교 전자재료공학과 하태준 교수 연구팀의 석사과정 김명현 연구원과 석박사 통합과정 박세룡 연구원이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나트랑(Nha Trang, Vietnam)에서 개최된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ICERE) 2024에서 2개의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석사과정 김명현 연구원은 "Self-powered sensor system based on triboelectric nanogenerators"에 대한 연구 주제로 석박사 통합과정 박세룡 연구원은 "High-performance transparent heaters for bioelectronic applications"에 대한 연구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5 하태준 교수 연구팀 2024년 한국센서학회 춘계학술대회 '현장 우수 포스터' 선정



본교 전자재료공학과 하태준 교수 연구팀(지도교수 하태준, 석박사 통합과정 김은하, 석박사 통합과정 박상준)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한국센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Visible-light photodetectors based on solution-processed thin-film transistors consisting of metal-oxide films doped with metal ions'를 연구주제로 발표해 현장 우수 포스터로 선정됐다.

6 김민경 교수 연구팀 최치원 학생 2024년 연구재단 석사과정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본교 전자재료공학과 김민경 교수 연구팀의 최치원 학생(석사과정)이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석사과정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석사과정생의 논문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치원 학생은 '철 기반 고용량 양극 소재 개발 및 전극 에너지밀도 향상을 통한 저가격, 고에너지밀도 차세대 이차전지 구현'을 주제로 한 과제를 제출하여 이번 사업에 선정됐으며, 향후 철을 기반으로 한 저가격 양극재 개발 및 전극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박철환 교수 연구팀 배지현 학생 한국생물공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본교 화학공학과 박철환 교수 연구팀 석사과정 배지현 학생이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배지현 학생은 'Acid Hydrolysis of Saccharina japonica and inhibition of Aliphatic Acids and Furan Compounds'를 주제로 해양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리파이너리 전략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다시마(Saccharina japonica)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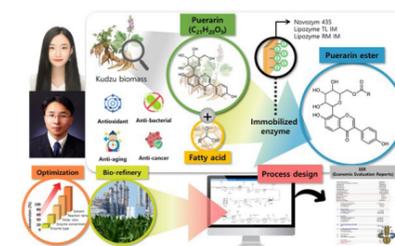
8 박철환 교수 연구팀 권혁기 학생 한국화학공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본교 화학공학과 박철환 교수 연구팀 석사과정 권혁기 학생이 지난 4월 24부터 26일 제주ICC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2024년 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미래를 혁신하는 화학공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권혁기 학생은 'Statistical Modeling of

Variables Interaction for Efficient Enzymatic Synthesis of Naringin Acetate'를 주제로 생물화공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 한편, 권혁기 학생은 한국연구재단이 석사과정생들에게 학문 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자로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24년 한국연구재단 석사과정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

9 박철환 교수 연구팀 김보경 학생 '2024 WISNET 대학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선정



본교 화학공학과 박철환 교수 연구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경 학생이 '2024년 WISN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에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을 목표로, 여대학원생과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자기주도적 연구개발 수행을 통한 연구역량과 리더십 강화 및 우수 여학생의 전공분야 진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보경 학생은 'Puerarin ester의 효소적 합성 및 공정 설계'로 설정한 주제의 참신성과 체계적인 내용구성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본 사업에 선정되었다.

10 박철환 교수 한국생물공학회 '생물공학 학술진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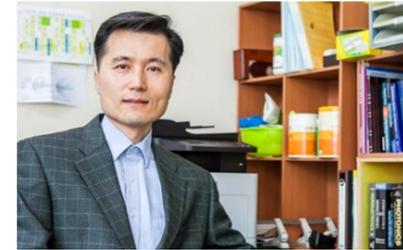
본교 화학공학과 박철환 교수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총회'에서 '생물공학 학술진흥상'을 수상했다. 산업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박철환 교수는 생물공학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동안 한국생물공학회에서 신인학술상(2012년), 담연학술상(2014년), 비온드학술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SCI(E) 논문 253편, 특허등록 43건, 학술발표 390건 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1 박세규 교수 연구팀 박상현 학생 한국공업화학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본교 화학공학과 박세규 교수 연구팀 석사과정 박상현 학생이 지난 5월 8일부터~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박상현 학생은 'Enhancing oxygen evolution kinetics using layered double hydroxide as an additive in ani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zers'를 주제로 나노분과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

12 이상신 교수 연구팀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 최종 선정



본교 전자공학과 이상신 교수가 이끄는 포토닉스 연구실이 '2024년 상반기 1차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유형2(글로벌형)'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분야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는 창의적인 개인연구를 지원해 우수한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리더 연구자로서 성장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상신 교수 연구팀은 '메타표면 집적형 온칩 씨클레이터가 통합된 실리콘포토닉스 단일파장 빔스캐너'라는 과제로 이번에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 4월까지 4년간 15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13 이상신 교수 연구팀 주서 학생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우수 논문상' 수상



본교 전자공학과 이상신 교수 연구팀의 석박사통합과정 주서 학생이 지난 5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제31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2024 Conference on Optoelectronics and Optical Communications: COOC 2024)'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서 학생은 'Wide angle-tolerant retroreflector based on all-dielectric metasurface in visible light'를 주제로, 유전체

메타표면을 이용해 넓은 각도 허용범위를 갖는 역반사기 구조를 제시해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연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14 임재한 교수 연구팀 김수현 & 권상원 학생 한국통신학회 논문지 '최우수 논문상' 수상



본교 소프트웨어학부 임재한 교수 연구팀의 김수현 학생, 권상원 학생이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논문지(KCI 및 SCOPUS 등재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논문은 김수현 학생(2024년 전자공학과 졸업)과 권상원 학생(소프트웨어학부 3학년)이 지난해 광운대 임재한 교수 연구팀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근무하면서 진행한 연구결과물이다.

15 이상민 교수 연구팀 강지연 학생 2024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한국전자거래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본교 정보융합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인공지능서비스 연구실) 석사과정 강지연 학생이 지난 5월 17부터 18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및 광주CGI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한국전자거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강지연 학생은 환자의 개별 신체조건과 장애 정도에 따른 개인 맞춤형 재활운동 방안을 연구한 논문 '개인 맞춤형 재활 운동을 위한 사람 자세 추정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 측정'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16 이상민 교수 연구팀 강지연 & 오수빈 학생 2024 KDMS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발표상' 수상



본교 정보융합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인공지능서비스 연구실) 석사과정 강지연, 오수빈 학생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 KDMS 춘계 학술대회 (한국 데이터마케팅학회)'에서 최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강지연 학생은 CCTV 영상 내 객체탐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야외 CCTV 촬영 환경의 영향을 포함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모델 업데이트 방법을 제안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수빈 학생은 CCTV 영상에서 제한된 이상 스펙트럼만을 탐지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지도, 준지도 학습을 결합한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고, 실험을 통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이상탐지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17 김영훈 교수 환경부 장관 표창



본교 화학공학과 김영훈 교수가 지난 5월 30일 열린 환경부 화학물질연구원(이하 안전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안전원의 10주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안전원에서 진행됐으며, 김영훈 교수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화학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8 김재요 교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3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본교 건축공학과 김재요 교수는 지난 7월 11일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여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제3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재요 교수는 석사과정 최성현 학생(졸업)과 공저한 논문 '건물 규모 및 재건축기 변화에 따른 주거용 RC건물에 대한 시공 중 지진하중의 영향 분석'으로 한국 전산구조공학회의 추천을 받았다.

19 채주형 교수 연구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ICT 분야 과제 선정



본교 전자통신공학과 채주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24년 상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다. 연구주제는 '고밀도 병렬 데이터 송수신 버스의 최적화 설계 연구'로 채주형 교수 연구팀 단독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하며, 이번 과제를 통해 2024년 6월부터 4년간 연구를 지원받게 된다.

20 채주형 교수 연구팀 한진홍 & 이기수 연구원 2024 IDEC Chip Design Contest '베스트 포스터' 어워드 수상



본교 전자통신공학과 채주형 교수 연구팀의 석박통합과정 한진홍, 석사과정 이기수 연구원이 지난 7월 9일 대전에 위치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C Design Education Center, 이하 IDEC) 본원에서 열린 '2024 IDEC Chip Design Contest'에서 베스트 포스터 어워드를 수상했다. 두 연구원은 IDEC를 통해 MPW를 지원받아 차세대 GDDR7 메모리 등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담은 IC Chip 설계 검증결과물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베스트 포스터 어워드를 수상하게 됐다.

캠 퍼 스 소 식

21 강북청년창업마루 '2024 청년성장프로젝트' 강북구 수행기관으로 선정



본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영욱)이 수탁 운영하는 강북청년창업마루가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의 강북구 수행기관으로

로 선정되어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서울시 및 서울시 컨소시엄 자치구 7개와 수행기관 4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체결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강소기업 등의 신인직원 직장 적응 지원 및 청년친화 조직 문화 조성이다.

22 서울청년센터 강북-수유3동 주민자치회 취약청년 발굴을 위한 '골목살핌단' 업무협약 체결



본교 산학협력단(정영욱 단장)이 수탁 운영하는 서울청년센터 강북(위탁자: 강북구청)과 수유3동 주민자치회(회장 정연복)는 지난 3월 8일 수유3동 주민자치회 교육장에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스스로 은둔한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청년센터 강북은 2024년 △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 50명을 발굴 △ 해당 청년 및 가족에게 전문교육 및 사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23 2024 광운대학교 신입생 환영음악회 개최



본교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는 지난 3월 26일 전자정보공과대학(학장 신현철) 주관으로 '2024 광운대학교 신입생 환영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신입생들의 입학에 환영하기 위한 이벤트로 진행되었고, 약 150명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8년 3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입생 환영음악회는 3월에 개최되는 광운대의 전통적인 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24 ㈜에스에스케이 건강한 대학생들 지원을 위한 여성용품 기부



(주)에스에스케이(대표 이지연)는 광운대학교 여학생의 건강한 대학 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용품(잇츠미 슬림 중형 생리대) 1,200팩(2백만 원 상당)을 광운대학교에 기부했다. 본교는 후원받은 여성용품을 보건실, 생활관 등에 지원하였으며, 총학생회를 통해 교내 여학생 휴게실에 비치하고 여학생들에게 여성の日 기념 키트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이지연 대표는 "광운대학교 여학생들이 훌륭한 여성 인재로 거듭 성장하여 사회에서 보람되는 일들을 많이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동혁 사장은 "공공기관과 대학교 그리고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김종현 전 총장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와 교육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5 광운대 산학협력단 논문 피인용 우수자 시상 차담회 개최



본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25일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본교 교원 중 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연구자를 초청해 기념패를 시상한 뒤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초청된 1% 우수연구자는 전자공학과 김남영 교수 및 박재영 교수, 전자재료공학과 하태준 교수, 환경공학과 장민 교수 및 코두루 교수, 전자바이오효물학과 최은하 교수 및 나젠드라 교수, 화학과 사영진 교수, 수학과 김태균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동훈 교수 등 10명이다. 이번 차담회는 2021년 출판된 논문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누적 인용횟수 상위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으며 향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6 광운대 기술지주회사 특허청 '민관협력 IP전략지원사업' 참여투자기관 선정



광운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특허사업화 전략을 동시에 지원하는 특허청의 '2024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사업'에 준성특허법률사무소, 국민대기술지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와 공동 민간투자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운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한호선 대표이사는 "특허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한 IP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교내 IP창업과 기술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7 인공지능융합대학-서울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단 업무협약 체결



본교 인공지능융합대학(학장 박병준)은 지난 4월 4일 광운대학교 새빛관 402호에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단(관장 신연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반 마련, 교육 봉사 및 보조공학봉사 관련 협업체계 강화, 현장 중심의 의견청취 및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8 제1회 광운대학교 총장배 스포츠테이핑 대회 개최



본교는 지난 4월 13일 새빛관에서 참빛인재대학 스포츠상담학과가 주관하는 '제1회 광운대학교 총장배 스포츠테이핑 대회'를 열었다. 스포츠테이핑은 운동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치료를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요 기술로, 이번 대회는 스포츠테이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물론 훈련된 전문가 집단을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50여명이 참석해 실력을 뽐낸 결과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이 선발돼 상품과 트로피, 상장을 수여받았다.

29 광운대학교-캄보디아 American University of PhnomPenh(AUPP) 교류협력 MOU 체결



본교는 지난 4월 18일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캄보디아 American University of PhnomPenh(AUPP)과 MOU를 맺고 향후 교육 및 지적 활동과 관련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MOU에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 광운대학교 전정호 총장과 민상현 대외협력부총장, 김남영 대학원장, 정성재 기획처장, 한재현 대외국제처장, 조성우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장, 니바트 키이(Nivath Kuy) AUPP CFO 등이 참석해 첫 발을 내딛는 양 기관 교류의 자리를 빛냈다. 이번 MOU를 통해 광운대학교와 AUPP는 △교직원 및 연구원 교류 △교환학생 파견 △공동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30 광운학원 설립자 '화도 조광운 박사 제44주기 추모식' 업무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설립한 화도 조광운 박사의 제44주기 추모식이 4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설립자묘역에서 고인의 유족, 광운학원 및 화도기념사업회 임원, 광운학원 산하 기관장 및 보직자, 동문회 임원, 김종직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은 국민이 일제 치하에서 시름하던 90년 전 설립자께서는 과학기술 교육이 조국의 독립과 자립경제의 기반이 될 것을 확신하고 청년 인재양성에 숭수수범하셨다"면서 "창학 9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광운의 교육은 실용과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한다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한마음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31 로봇게임단 로빗 신규개발 로봇 'KULS' 공개전시회 개최



본교 로봇게임단 '로빗(RO:BIT)'은 5월 8일 광운대 80주년 기념관 2층 로비에서 모바일 베이스 신규개발 로봇 'KULS' 공개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로빗(RO:BIT)'은 새롭게 선보이는 'KULS'의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시연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로봇을 조종해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이날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광운대학교를 방문한 일본 사립대학협회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관계자들이 로봇의 공개전시회를 찾아 새로 선보인 'KULS'의 우수한 기술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32 광운대-양주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첨단IT융합연구소' 설립 업무협약 체결



본교는 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청 양주-광운 첨단IT융합연구소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9일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강수현 양주시

장, 오원석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광운대학교는 양주·광운 첨단IT융합연구소 설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교육, 인재양성 지원 등에 나선다.

33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정한울 교수 산자부 장관 주요외거점 방문행사에서 기술시연



본교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정한울 교수는 지난 5월 17일 경기 성남 제2판교 내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출입 기자단 10여 명을 대상으로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이용해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실시간 변환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이 날 정한울 교수의 기술시연 후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출입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저화질 사진이 AI반도체 탑재 컴퓨터를 거쳐 고화질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 안덕근 장관은 사진을 확대할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고, 정한울 교수는 시가 사진 반복 학습을 통해 문제를 방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34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2024년 입주기업 선발 완료



본교 캠퍼스타운은 2024년 입주기업 모집에 135개 기업이 참여해 3대 1이 넘는 경쟁을 벌인 끝에 로봇, 에너지바이오, ICT 분야 등 본교에 특화된 기술 창업분야를 중심으로 40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함께 조성하고 운영하는 창업센터로, 입주 기업에게 독립형 사무실 17개를 제공한다. 이번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공간과 시설뿐만 아니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투자유치를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35 광운대학교 학생 패널 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글로벌 서밋 토론 참여



본교 국제학부 및 소프트웨어학부 학생들이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학생지원연합(IASAS) 글로벌 서밋 토크에서 학생 패널로 참여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기관 및 학생 지원’을 주제로 국내 최초로 국제학생지원연합, 한국장학재단 주관, 교육부 및 대구광역시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40여 개국, 2백여 명의 IASAS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FH Joanneum 대학의 Birgit Phillips 교수(인공지능 교육지원 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36 경영대학원 운영장학회 제48회 장학금 수여식 열려



본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들이 설립한 운영장학회(이사장 유정범)는 지난 5월 23일 80주년 기념관 310호에서 제48회 운영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 17명에게 장학금 14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1998년 2월 설립된 운영장학회는 48회에 걸쳐 재학생 711명에게 6억 5,68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대표적인 동문 장학회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3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개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일권 교수)의 봄철 정기 학술대회가 5월 24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날 학술대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정치외교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와 산업 실무자 등 전문가 발제(25개)를 중심으로 14개 세션이 구성됐다. 특히 ‘다시, 커뮤니티 : 디지털 사회의 공명을 위한 지식공동체 찾기’를 주제로 3개의 메인세션이 기획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38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개관식 성료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영욱)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개관식이 지난 5월 24일 광운대학교 천창호 총장과 오연석 도봉구청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지역기반과 연계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집중 육성해 도봉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창업허브창동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등 다양한 청년 취창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39 서울청년센터 강북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 마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영욱)이 수탁 운영하는 서울청년센터 강북과 백년시장 상인회는 지난 5월 24일 강북구 세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경험청년과 구직 및 교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니트 청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백년시장 일대에서 진행했다. 서울청년센터 강북은 지난 2022년 6월 백년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2023년 7월부터 지역 내 고립 청년지원 전문민간기관의 세어하우스에 제철 식재료와 신선한 야채 등을 매주 무상지원하고 있다.

40 광운대 기술지주회사-더인벤션랩 ‘딥테크 벤처투자조합 1호’ 결성



본교 기술지주회사(대표 한호선)는 스타트업 초기 투자기관이자 틱스(TIPS) 운영사인 더인벤션랩(대표 김진영)과 딥테크분야 초기 단계 기업투자를 위한 ‘광운대 더인벤션랩 딥테크 벤처투자조합(이하 딥테크 펀드)’을 공동조성했다.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로봇,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등 광운대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딥테크 초기 단계 팀을 발굴하고 투자하고자 조성됐다. 1호 조합의 규모는 12억 원이며 광운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교수 및 석·박사 인력 중심의 딥테크 초기 스타트업 팀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성격을 갖고 있다.

41 ㈜에이월 및 ㈜유알엔터테인먼트 히팅슬리브 세트 30개 기증



본교는 지난 6월 4일 ㈜에이월과 ㈜유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이 사용할 ㈜에이월사의 히팅슬리브 30개를 기증받았다. 이 날 행사에는 광운대학교 천창호 총장과 민상원 대외부총장, ㈜에이월 김현성 대표이사, ㈜유알엔터테인먼트 조종영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에이월의 히팅슬리브는 부상 방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야구, 골프, 배구, 테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 중이다.

42 광운대 AI산업연구센터-㈜넥타르소프트 다국어서비스제공 및 해외마케팅 협약 체결



본교 AI산업연구센터는 지난 6월 10일 한울관에서 ㈜넥타르소프트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 다국어 서비스 제공 및 해외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다. AI산업연구센터와 ㈜넥타르소프트는 AI기반 다국어 서비스를 개발해 1차적으로 영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제품의 실증이 끝나고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면 미국 내 영어를 선호하는 한국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43 홍보대사 비마랑 푸른나무재단에 축제기간 활동수익금 전액 기부



본교 홍보대사 비마랑이 지난 축제기간 중 홍보활동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푸른나무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광운대 한재현 대외국제처장, 조성우 홍보팀장, 홍보대사 비마랑 조수영 회장, 유아름 부회장, 조유나 기획협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5일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렸다. 홍보대사 비마랑은 ‘2024 월계축전’ 기간 중 재학생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692,000원) 전액을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학교폭력제로@광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44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2024 HUSS 융합캠프 참여 및 글로벌 공생 컨소시엄 출범



본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해영)은 지난 2024년 7월 8일부터 3박 4일간 충남 스포라스 리솜에서 열린 ‘2024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융합캠프(이하 HUSS 융합캠프)’에 글로벌 공생 컨소시엄 주관대학교로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인문사회융합인재가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 융합 사고를 펼칠 수 있는 캠프형 교육으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40여 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신규 연합체 출범식과 협약식을 함께 진행했다.

45 광운대학교 국제봉사단 네팔 봉사활동 진행



본교 국제봉사단이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네팔 포카라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광운대 학생 20명과 학생서 학생복지팀 인솔자 1명으로 구성된 국제봉사단은 네팔 안파루나 트레킹 지역 초입에 위치한 ‘4차 비레탄티 휴먼스쿨’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태권도, 컴퓨터 등의 교육봉사와 학습환경개선 노력봉사에 적극 참여했다. 더불어 한국 전통놀이와 체육대회 등 문화교류를 통해 현지 학생들과 유대를 쌓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46 바추얼기업 오모션 250억 원 밸류 시리즈A 브릿지 투자 유치



본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오문석 교수와 전자재료공학과 서영호 교수가 2021년 공동 창업한 오모션은 액셀러레이터 더인벤션랩(대표 김진영)이 운영하는 딥테크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250억 원 밸류의 시리즈A 투자를 위한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오모션은 영어는 물론 정교한 한국어 발화가 가능한 바추얼 휴먼 제작 생성형 AI 기술 ‘오모

션 젠아이(GenAI)’를 비롯해 비전 기반 모션 캡처, 초실사 3D 가상인간 자동생성, 4D 불륨메트릭 모델 합성 및 압축/스트리밍, XR 공간 컴퓨팅 기반 콘텐츠 서비스 등 차세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3D 바추얼 휴먼 분야 특화 벤처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47 광운대학교-프랑스 그레노블대학 DBA(경영학박사) 양해각서 체결



본교는 지난 7월 25일 세계적인 명문 비즈니스스쿨인 프랑스 그레노블대학(Grenoble Ecole de Management, 사진)과 경영학박사(DBA,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DBA(경영학박사)는 MBA(경영학석사)의 상위 학위이다. 그레노블 비즈니스스쿨은 AACSB, EQUIS, AMBA 세계 3대 인증을 모두 받은 트리플크라운 명문대학교로 유명하다. 홍대순 경영대학원장은 “창학 9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은 ‘글로벌 광운’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48 게임콘텐츠학과-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상호협력협약(MOU) 체결



본교 참빛인재대학 게임콘텐츠학과(학과장 정형원)는 지난 2024년 8월 6일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정대석)와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교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재직자 실무 중심 교육 환경 조성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대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49 건축학과-청도이공대학교 EAAF 프로그램 개최



본교 건축학과(학과장 박열)는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금)까지 본교 캠퍼스에서 청도이공대학교와 공동 주관하는 EAA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EAAF(East Asia Architecture Forum)은 우리 대학과 청도이공대가 함께하는 국제 건축 프로그램으로 양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두 학교 캠퍼스를 번갈아 가며 개최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건축적 아이디어를 나누고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0 산학협력단-㈜홀즈에이아이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본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영욱)은 지난 8월 14일 (주)홀즈에이아이(대표이사 임동석)와 AI 기반 의료 서비스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홀즈에이아이는 ▲ AI 기반의 플랫폼 기술의 공동연구 수행, ▲ 공간, 장비, 시설 및 정보의 공동 활용, ▲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분야를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31 학교법인 광운학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업무협약(MOU) 체결



본교 참빛인재대학 게임콘텐츠학과(학과장 정형원)는 지난 2024년 8월 6일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정대식)와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교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재직자 실무 중심 교육 환경 조성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대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32 국어국문학과 고명철 교수 '화산도 소설어 사전' 편찬책임자 맡아 출간



본교 국어국문학과 고명철 교수가 편찬책임자를 맡은 전담 팀이 제주 4.3을 다룬 대하소설 '화산도'를 바탕으로 한 '화산도 소설어 사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12권 분량의 '화산도'에서 시대, 인물, 지명, 풍속의 항목을 선정하고 역사 및 시대에 준하는 용어와 등장인물, 지명 및 장소, 제주 풍속 등의 소설어(표제어) 645개를 가려 뽑은 뒤 4.3 연표, 인물 관계도, 지도, 저자 김석범 연보, 참고자료 등 소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풍성하게 담았다.

33 인제니움학부대학 도승연 교수 한민족문화학회 학회장 취임



본교 인제니움학부대학 도승연 교수가 2024-2025년도 한민족문화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민족문화학회는 1995년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발족되어 고전과 현대문학은 물론 한국철학과 한국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본령을 한민족 문화의 구체적 지형 아래 고민하며 매년 4회의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며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학회이다.

34 법학부 이춘원 교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학회장 취임



본교 법학부 이춘원 교수가 2024-2025년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개인 및 기업의 파산 및 회생절차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공익법인이다. 학회는 법학자, 법률실무가 및 금융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 회생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연구 성과

가나다 순 배열

고승훈 교수 연구팀[전자재료공학과]

- 최고 권위 '반도체 학회 ISSCC 2024'에서 터치 컨트롤러 기술 발표

김남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 인공지능 기반의 올 패브릭 바이오닉 전자피부 개발 성공
- 뉴로모픽 행동 인식 광소자 멤리스터 개발 성공

박세규 교수 연구팀[화학공학과]

- 귀금속 저장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전지성능 향상 및 열화 현상 규명

박재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 기계 고장 진단 무전원 진동센서 개발
- 통기성이 뛰어난 무전원 촉각센서 개발
- 소음이 없는 고출력 하이브리드 나노발전기 개발
- 배터리가 필요 없는 웨어러블 센서 개발
- 일상에서 고출력 전기 생산하는 친환경 나노발전기 개발
- 신축성 뛰어난 인체활동 모니터링 무전원센서 개발
- 무(無)배터리 자동차 실내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배터리 없이도 동작하는 고감도 압력센서 개발

박철환 교수 연구팀[화학공학과]

-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유용 생리활성 물질의 친환경 추출법 제시
- 생촉매 기반 항산화 물질 연속 생산을 위한 전략 제시

사영진 교수 연구팀[화학과]

- 새로운 전기 과산화수소 생산촉매 작동원리 규명

신원호 교수 연구팀[전자재료공학과]

- 차세대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개발

이기원 교수[화학공학과]

- 차세대 유연소자용 천연자원유래 재활용가능 가교고분자 복합체 개발

이정훈 교수 연구팀[전기공학과]

- 세계 최고 속도의 진단/예측 기술 개발

이종철-김남영 교수 연구팀

[전자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

- Multilayer GaAs IPD Resonator 개발

이지훈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 새로운 마이크로 클러스터형 Ru 도핑된 구리-망간-붕소-인 전기촉매 개발

이현호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

- 응액공정만을 사용한 고효율 상부발광 양자점 발광다이오드 개발

장민 교수 연구팀[환경공학과]

- 입상 MOF/산화 그래핀 흡착제 개발 및 제거 기작 규명
- 과산화수소 및 포름산 동시 고효율 생산가능한 광촉매 개발

하태준 교수 연구팀[전자재료공학과]

- 이황화 텅스텐 단분자층 기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제작 및 논리회로 개발

연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최신연구성과(www.kw.ac.kr/ko/life/research.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배는 선배의 등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 후배의 등을 또 다른 후배가 보고 걸어갑니다.

이어지는 기나긴 행렬이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광운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 그렇게 광운의 미래가 됩니다.

발전기금 참여안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의미 있는 동행

‘광운과 함께’

• 간소한 기부 약정

PC-모바일에서 <http://give.kw.ac.kr>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납부 방법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 (CMS), 카드 결제, 급여공제 (교직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상속재단 기부 : 고인의 유언증서,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상속세제 면제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발전기금 종류 및 기타 후원방법 안내

발전기금 종류

- 광운의 발전을 위한 **「광운사랑 발전기금」** :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 월 1만원씩 광운과 함께 **「광운만만 기금」** : 월 1만원씩 광운과 함께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정기금 **「광운 르네상스」** : 기부금의 용도 및 대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학과, 대학원, 건축, 장학, 연구 등)
- 광운의 시설 및 공간 후원 **「네이밍기금」** : 광운의 시설 및 인프라 후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강의실, 실험실습실, 80주년 기념관,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등)

현물 기부 및 기타 후원 종류

- 유형고정자산, 유가증권, 각종 법적 권리 등



• 후원문의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화도관 302호
 홍보팀 Tel : 02 - 940 - 5504 ~ 5 Fax : 02 - 940 - 5506 e-mail : kwlove@kw.ac.kr



발전기금 약정명단

500억 이상
조무성 초대총장
10억 이상
삼성전자
하나은행
해동과학문화재단
1억 이상
광운대 총동문회
구관영 동문(응용전자공학 69, (주)에이테크놀러지 대표이사)
국민은행 광운대지점
김문찬 동문(황거 대표)
김영준 동문(전자재료공학 79, 트레이비스(주) 대표이사)
대한축구협회
로봇게임단(RO:BIT)
미래환경플랜(주)
엄평용 동문(응용전자공학 77, (주)유진테크 대표이사)
LG전자
신한은행
오경호 동문(취도원원구 대표이사)
오종택 동문(쥬인선이엔티(주))
이강수 동문(전자재료 77, (주)아이앤비코리아 대표)
이웅주 동문(상원유치원)
이재령 동문(전자통신공학 74, 전 에릭슨엘지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조면기 동문(쥬인프라넷 대표)
임용재 동문(전자계산기공학 88, (주)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전인구 동문(전기공학과 86, (주)테크윙 사장)
정용택 학부모(산업심리학과 정성훈)
정용호 동문(전자통신 80, (주)지탈컴 대표)
카카오페이(주)
현대자동차
1천 이상 1억 미만
APIS
GS스포츠
광운대학교 ROTC동문회
(주)TTC EDU
(재)간송학술장학재단
최선윤 동문(응용전자공학과 73, 강릉초당두부 대표)
(주)가이건축사사무소
강영현 동문(환경대학원 07)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공영삼 동문(응용전자공학 77, (주)테라텍

대표)
광운포럼(광운퇴직지원모임)
광주 FC
구자문 교수
국제통상학부 원우회(광무장학회)
권순철 교수(스마트융합대학원)
김기용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2018, 블랙홀블링센터 대표)
김대홍 교수(화학공학과)
김문석 동문(경영학과 88,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김병호 명예교수(화학과)
김병하 동문(제주본가 대표)
김상률 외래교수(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성길 교수(교육대학원)
김은수 명예교수(전자공학과)
김인태 교수(화학과)
김장곤 동문(무선통신공학과 64, (주)레인보 대표이사)
김진오 명예교수(로봇학부)
김해진 동문(전파공학과 94, 전파공학과 외래교수)
김호 동문(쥬김호더래버러토리 대표)
이수미 ((주)나비코 대표)
남학현 명예교수(화학과)
대학원 동문회
도서출판 북스힐
도교 FC
문한경(디지털국제공조(주) 대표)
류정범 동문(AMP 19대 회장)
(주)마이크로트랙
박상열 명예교수(법학부)
박인비 동문(생활체육학과 08)
박종길 동문(산업경영학과 84)
박종문 동문(응용전자공학 68)
박철환 교수(화학공학과 93, 화학공학과)
임대순(백영전자(주) 대표)
윤태복 동문(전자재료 80, (주)에스트라 대표)
부동산법무학과 원우회
부천 FC
블랙야크
산학협동재단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원우회
서울시축구협회
선지원 교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손광철 동문(정보콘텐츠학과 교수)

손정완 동문(화학공학과 91, (주)이레머티리얼스 대표)
송관호 동문(대학원 동문회장)
송영출 교수(경영학부)
수원상성블루윙즈축구단
신대성 동문(스마트마이(주) 대표)
심상렬 교수(국제통상학부)
아비스파 후쿠오카
김진수 동문(전자공학과 75, 아이디피시스템 대표)
문동찬 (전자재료공학과 명예교수)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엄정근 동문(전자공학과 70)
오환원 동문(쥬우원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이청호(쥬에버트란 대표)
여중섭
이동헌 동문(대학원 전파공학 04, (주)알에프티 대표이사)
이종민 동문(전자공학, (주)에이직랜드 대표이사)
우리들교회
우리은행장위동지점
원종숙 동문(교육대학원 12,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원철상 동문(국제통상학과 02)
편입학원 위드스타(구. 위드유편입학원)
유선봉 명예교수(법학부)
윤경자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9)
윤도영 교수(화학공학과)
윤영자 동문(교육대학원 12)
이대희 명예교수(행정학과)
이랜드스포츠
이문희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5)
이반스포츠
윤옥기(고.이상우 명예교수)
이상진 동문(경영대학원 AMP 47기)
이상철 전 총장
이상현 동문(건축공학과 89)
이상희 교수(산업심리학과)
이승현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이현석 외래교수(국어국문학과)
(주)에스에스케이
남성전 동문(영어영문학과 08, 인사이터 대표)
인천 유나이티드 FC
임옥순
전남 드래곤즈
전영무 명예교수(화학과)

전자공학과 83학번 동문회
전자재료공학과 상월회
전자통신공학과 84학번 동기회
전홍배 교수(화학과)
정동훈 교수(미디어영상학부)
정준교 동문(어드벤처케이알(주) 대표이사)
조화준 동문(교육대학원 13)
(주)에스원
진철평
차근식 명예교수(화학과)
창암장학재단
(주)체널진
천성오 직원
천장호 교수(전자공학과, 총장)
최봉구 동문(쥬신아이앤씨 대표)
최용락 동문(화학과 89)
축구부 학부모회
커미트
탁진국 교수(산업심리학과)
태전플란트치과
통일스포츠
파이터치연구원 재단법인
포항 스틸러스
피앤비우창(주)
(주)클립소프트
한국대스포츠총장협의회
한병우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7)
한중희 교수(행정학과)
한태희 동문(화학과 94)
함명수
함현미 동문(교육대학원 13)
헬시바(주)
(주)혁신전공사
현대홈쇼핑
홍일기 동문(경영대학원 AMP 50기)
홍창표 동문(전자공학과 74, 로보링크 대표)
황성재 동문(컴퓨터소프트웨어 01, (주)XYZ 대표)
5백 이상 1천 미만
JTBC콘텐츠허브(주)
KB국민은행 락스타비자점
OITA FOOTBALLCLUB
김영만 동문(전산 81, (주)생활의쓰임 대표)
강남이 동문(교육대학원 13)
강순복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6)
고병엽 직원
광운꽃방

광운대학교 재직동문회
교육대학원 원우회
군화화고무신
김광섭 동문(교육대학원 15)
김기영(전 총장)
김용희 동문(전자재료공학과 79)
김유근 직원
김윤현 동문(전자재료공학과 01)
김진홍 동문(전자재료 75)
김중현 교수(전자융합공학과, 전 총장)
김태훈 직원
김현정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용한 동문(제어계측공학과 92)
대송이앤에프(주)
도건우 동문(전자재료공학과 02)
류기환 교수(스마트융합대학원)
민상원(전자통신공학과)
박구현 동문
박경애 교수(교육대학원)
박석 교수(스포츠융합학과)
박희동 직원
배갈타 샌다이
브이디컴퍼니(주)
수원FC
신재호 교수(화학과)
심동규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썬웨이브텍
(주)아이센스
(주)웨이브피아
(주)케이피앤씨 안전문화원(소방안전물품 기증)
안영옥산부인과
윤종태
윤석재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4)
이상록
이옥진 교수(스포츠융합학과)
이용대
이윤미 교수(화학과)
이일재 교수(영어산업학과)
이영미 동문(도시계획부동산학과 18)
임도용 동문(교육대학원 12)
임종태 동문(응용전자공학과 66)
임창환 동문
이철호 동문(전자재료공학과 80)
(주)인바디
장락우 교수
장지훈
정달호 학부모(정보과학교육원 정진우)

정석재 교수(경영학부)
정지혜 동문(교육대학원 15)
조형민 동문(전자계산기공학과 85)
최원기
(주)케이제이아이캠
(주)태영건설
티앤씨프로
(주)허정인더스트리
홍규화
황윤희 동문(상담복지정책대학원 16)
한국대학아이스하키연맹
1백 이상 5백 미만
BASFCOMPA
GH타워
GS건설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SC제일은행
가가와
강미영
강우람 동문(산업심리학과 05)
강인선 동문(교육대학원 06)
건설법무대학원24기 원우회
건설법무대학원25기 원우회
건설법무대학원26기 원우회
건설법무대학원28기
건원엔지니어링
경남 FC
계룡건설산업(주)
고재욱 교수(화학공학과)
(주)공간종합건축사
곽인찬
곽태형 동문(화학과 94)
광운분식
광운플레이어스
권배근
권영복
권혁준 동문(교육대학원 12)
권현영
구태규
김경선
김고은 동문(교육대학원 14)
김남영 교수(전자공학과)
김명순 동문(교육대학원 14)
김문귀 직원
김민동 교수(법학부)
김보경 동문(전자계산 98)
김보영 직원

김상건 직원
김석우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성국
김성수 동문(전자통신학과 84)
김양래 교수(화학과)
김용혁 교수(소프트웨어)
김은희 직원
김은죽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의경(대학원 행정학과 21, 시립북청청소년센터관장)
김진상(대학원 행정학과 0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장)
김태주(상담복지정책대학원 12, 창동청소년센터관장)
조남익(시립성북청소년센터관장)
김정수 교수(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김정주 직원
김주찬 교수(행정학과)
김준영 직원
김진근 교수(법학부)
김재미 동문(동북아통상학부 08)
김형석 교수(전기공학과)
김화열
김홍빈
권혁용 동문(남광토건 대표)
김오성
김영란 직원
김장엽 교수
나안섭 동문(건설법무대학원 20)
남영건설
네이버시스템
노진이 직원
뉴비바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대림산업(주)
대우건설(주)
대흥코리아주식회사
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동부건설(주)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사무소
(주)디에이치에스앤이
디엔제이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주)로보티즈
로얄종합상사
롯데건설(주)
(주)메스메스에이지
모아건설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문상현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계자
박선하 직원
박성원
박수원 교수(전자통신공학과)
박수진 동문(교육대학원 13)
박안나
박일우 교수(로봇학부)
박재석 동문(전자재료공학과 85)
박정우 동문(경영대학원 05)
박종구 명예교수(행정학과)
박태원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버프프로덕션
변대원
변영주 동문(교육대학원 11)
본그레이
부경희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브라운에듀(주)
비엔컴컨설팅
비전홀딩스컴퍼레이션
삼성물산(주)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양동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서울시아이스하키협회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서정훈 직원
성문컴퍼니
세그웨이 서울
(주)세이프라이프
(주)솔데스크
송승호 교수(전기공학과)
송시현 동문(교육대학원 13)
슈엔도로시
시대의 시선
신만중 교수(법학부)
신상훈
신유진 직원
신일 제약(주)
신철웅
싸인텔레콤
쌍용건설(주)
아이스하키 선수단
아이스하키부동문회
아이스하키부학부모회
아큐멘경영연구소
안창범 교수 전기공학과



발전기금 약정명단

양산시체육회
 애드런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에이이치엔
 연구인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7)
 오세훈 직원
 오준희 직원
 오창남 학부모
 (주)와이넷미디어
 와이엔하우건설팀
 왕송찬 직원
 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우미건설(주)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월계대반점
 위피피(주)
 유지상 교수(전자공학과, 전 총장)
 유태호 동문(정보통신공학과 78)
 유희용 동문(전자공학과 03)
 유정호 교수(건축공학과)
 유알엔터테인먼트
 윤복근
 윤이숙 교수(국제학부)
 윤환식 동문(통신공학과 67)
 유니비스(주)(전통류 기증)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기서 명예교수(로봇학부)
 이도준 동문(응용전자공학 74)
 이대석 교수
 이명래
 이병헌 교수(경영학부)
 이상경 교수(법학부)
 이상균 동문(행정학과 84)
 이상신 교수(전자공학과)
 이상원 직원
 이상주 동문(정보콘텐츠학과)
 이선호 동문(행정학과 89)
 이수건설(주)
 이승택 동문(교육대학원 13)
 이영남 동문(화학과 80)
 이윤상 직원
 이정훈 교수(전기공학과)
 이종업 동문
 이지영 직원
 이창석 직원
 이춘원 교수(법학부)
 이충근
 이태로

이하형 동문(대학원 02)
 이혁준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이현 동문(대학원 02)
 이현웅 동문(경영대학원 12)
 이형근 교수(컴퓨터정보공학부)
 이해영 교수(행정학과)
 이혜진 동문(전기공학과 07)
 일선종합건설
 임영균 명예교수(경영학부)
 임창국 동문(국어국문학과 90)
 임철희 동문(건설법무대학원 20)
 임형태 동문
 장성균 동문(무선통신학과 73)
 장홍제 교수(화학과)
 전승협 동문(법학과 03)
 전용암
 전지현
 전진택 동문(전기공학과 02, (주)서울식품
 이사)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병태 동문(전자공학과 68)
 정승기 교수(전기공학과)
 정영실 동문(상당복지정책대학원 19)
 정은진 직원
 정인준 동문(전자공학과 68)
 제기홍 동문(전기공학과 74)
 조선애 직원
 조재희 교수(정보융합학부)
 조진웅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2)
 조현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직원
 주식회사 생각을 건다
 주식회사 안테나필름
 주식회사 에이웜
 (주)아크프로덕션
 참사랑
 채영준 동문(화학과 92)
 천지산업
 최대집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9)
 최상목 동문(행정학과 84)
 최윤정 직원
 최재혁(스트릿썬더스 광운대집)
 최철순 교수(스포츠융합과학과)
 최한설 동문(컴퓨터소프트 14)
 최해욱 동문(교육대학원 09)
 카라반캠프
 케이브리지(주)
 탁민희 동문(미디어영상학부 07)

탁정애 동문(화학과 90)
 (주)태영건설
 (주)토문앤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티웨이항공
 파라다이스세가사미
 패밀리마트
 (주)포스코건설
 표정우 직원
 (주)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
 학지사
 한국마사회
 한국마이크로칩(주)
 (주)한국방재기술
 한국번역가협회
 한미파슨스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한신공영
 한완옥 동문(전자공학과 83)
 한춘 명예교수(화학공학과)
 한태영 교수
 (주)한화건설
 향림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핸디언즈
 허구철 동문(전자공학과 80)
 허돈 교수(전기공학과)
 현대건설(주)
 현대엔코
 홍광의 동문(수학과 88)
 홍진웅 명예교수(전기공학과)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대학축구연맹
 극동건설
 (사)한국이스포츠협회
 한재현 교수(경영학부)
 홍순우

1백 미만

KBS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강민철 동문
 강신저 동문(교육대학원 14)
 강순란 동문
 강태경
 강항성 동문
 강효경 동문(교육대학원 06)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원우일동
 고선아 동문(교육대학원 13)
 고준영

곽민희 동문(화학과 99)
 권기성 명예교수(행정학과)
 권기창 교수(물리학과 88,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권미현 동문(화학과 05)
 권지숙 직원
 권현숙 동문(교육대학원 14)
 권재국
 기문사
 김가진 동문
 김경민 동문
 김경채
 김경호 학부모(생활체육학과 김현우)
 김관일
 김기윤 교수(경영학부)
 김길문
 김나영 직원
 김나현 동문
 김나현 동문(교육대학원 13)
 김남선 동문(교육대학원 13)
 김관식
 김대식 동문(교육대학원 08)
 김대식 직원
 김대호 동문(화학과 93)
 김도현 동문(국제협력학부 14)
 김동균 동문(환경공학과 91)
 김동선 동문(교육대학원 14)
 김동욱(현대홈쇼핑)
 김동은 동문(교육대학원 14)
 김동인 직원
 김래오 직원
 김마리아 동문(교육대학원 14)
 김민기 동문(화학과 04)
 김민원 동문(교육대학원 11)
 김범준
 김병목 동문(화학과 93)
 김복기 교수(전자공학과 81, 전자공학과)
 김봉신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상훈 교수(경영학부)
 김석원 동문
 김석태 동문(전자공학과 76)
 김선화 동문(교육대학원 19)
 김설영 동문(교육대학원 10)
 김성룡 직원
 김성호 교수
 김성호 동문(화학과 01)
 김소영 동문(화학과 98)
 김소윤 직원

김수안 동문
 김수철 동문(통신공학과 77)
 김숙진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숙희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순일 동문(교육대학원 14)
 김승규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김승수 동문(교육대학원 04)
 김승진
 김승춘 동문(대학원 08)
 김신한 동문(화학과 00)
 김연화 동문
 김애자 동문(교육대학원 13)
 김연영 동문(화학과 01)
 김영무 직원
 김영훈 교수(화학공학과)
 김영부 동문(응용전자공학과 71)
 김영조 동문(스포츠지도학과 01)
 김용문 직원
 김용진
 김옥 동문(화학과 99)
 김유경
 김유정 동문
 김윤정
 김윤희 동문(대학원 12)
 김인기 동문
 김인숙
 김인화
 김임순
 김정권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김정균
 김정기 동문(화학과 94)
 김정숙 동문(교육대학원 12)
 김정주 동문(교육대학원 12)
 김준모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김준헌
 김지숙 동문(화학과 99)
 김지찬
 김진상 동문(행정학과 86)
 김진혁
 김진현
 김창동 직원
 김충혁 동문(전기공학과 78)
 김태규 동문(화학과 89)
 김학목 동문(화학과 97)
 김현
 김현욱
 김형호
 김혜정 동문(교육대학원 11)

김혜진 동문
 김홍빈 동문(대학원 12)
 김효겸 동문(산업경영학과 84)
 김희교 교수(동북아문화산업학부)
 김희정 동문(경영학과 05)
 김상기 동문(응용전자 80)
 김지연 동문(전자공학부 97)
 김지연(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김현지
 나극환 명예교수(전자공학과)
 나인표 동문(경영학과 86)
 나준오
 남승우 직원
 남해울 동문(컴퓨터공학과 14)
 노용대 직원
 노진우
 도승연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도연우 동문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라태웅 동문(경영학과 06)
 류규만 동문(전자통신 80)
 류혜진 동문
 문경 동문(교육대학원 13)
 문명희 동문(상당복지정책대학원 10)
 민영섭 동문(행정학과 85)
 박노왕 동문(경영대 AMP)
 박범창 동문(화학과 05)
 박상준 동문(생활체육학과 14)
 박상준 동문(화학과 05)
 박서영 동문
 박성국 동문(전자통신 80)
 박소연 동문(교육대학원 14)
 박용우 직원
 박용식
 박유진 동문(교육대학원 03)
 박유림
 박정수 직원
 박정호 동문(화학공학과 12)
 박정민(대학원 행정학과 21,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변가혜(상당복지정책대학원 09,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박진희 동문(교육대학원 19)
 박찬만 직원
 박찬엽 동문(화학과 99)
 박필예 동문(교육대학원 12)
 박하나 직원
 박해진 동문(화학과 96)

박현규 동문(전기공학과 86)
 박현자 동문(교육대학원 11)
 박현지 동문(행정 02)
 반상욱 직원
 반윤구
 배경호 동문(화학과 96)
 백주훈 교수(로봇학부)
 백향기 동문(교육대학원 11)
 변숙은 교수(경영학부)
 사영진 교수(화학과)
 서명화 동문(교육대학원 14)
 서민정 동문
 서상구 교수(경영학부)
 서승원 동문(화학과 88)
 서영경 동문(교육대학원 13)
 서영교 동문(전자공학과 14)
 서영호 교수(전자재료공학과)
 서정선 동문(교육대학원 14)
 서호석 동문
 성백순 동문(경영학과 06)
 성옥석
 성진호 직원
 설종현 동문
 소인광 직원
 손기인 동문(화학과 96)
 손성윤
 손종철
 손채봉 교수(전자통신공학과)
 손화수 직원
 송경언
 송은숙 동문(교육대학원 11)
 송의식
 송재근 동문(유콘시스템 대표)
 송형수 교수(수학과)
 신문철 직원
 신용문 동문(건설법무대학원 18)
 신재현 동문
 신정희 동문(교육대학원 13)
 심경용 직원
 심천보 동문(전기공학과 86)
 안길환 동문(화학과 99)
 양성희 교수(전자공학과)
 양창근 동문(건축공학과 91)
 예익수 직원
 오승인 직원
 오현주 동문(화학과 06)
 오별님
 온정훈 동문(화학과 97)

우동영 직원
 원재당약국
 원정아 동문(교육대학원 14)
 엄두식 직원
 유미애 학부모(컴퓨터공학부 김승모)
 유정문 동문(컴퓨터공학과 02)
 유정범 동문
 유태상 동문
 유형훈 직원
 윤명선 동문(교육대학원 14)
 윤상호 동문(대학원 12)
 윤선영 동문(화학과 05)
 윤선희 동문(교육대학원 14)
 윤우진 동문(화학과 92)
 윤윤석 명예교수(경영학부)
 윤재우 동문(미디어영상학부 15)
 윤탁 동문(상당복지정책대학원 09)
 윤형기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이홍 교수(경영학부)
 이강백 동문(전기공학과 82)
 이강성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이건영 교수(전기공학과)
 이경철 동문(컴퓨터공학과 09)
 이근수 동문(화학과 05)
 이대규
 이상주 직원
 이대의 동문
 이동석 직원
 이동익 동문(정보제어공학과 03)
 이두병 동문(화학과 91)
 이미영 동문(교육대학원 13)
 이미선(상당복지정책대학원 07,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정서(상당복지정책대학원 21,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이정임(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명로 동문
 이상중
 이상호 동문
 이상혁 동문(제어계측공학과 92)
 이상훈 교수(인제니움학부대학)
 이선정 동문(화학과 01)
 이성은 동문(교육대학원 15, 평강어린이집)
 이성재 동문
 이순화 동문(교육대학원 19)
 이승희 직원
 이승은 직원



발전기금 약정명단

이승연	장세영 동문(교육대학원 19)	최병광 직원
이영숙 동문(교육대학원 10)	정수호 동문	최복선 동문(교육대학원 10)
이영희	정용재 동문	최상두
이옥희 동문(교육대학원 13)	정유하 동문	최성수 동문(화학과 99)
이윤희 동문	정종석 동문	최승오 동문(교육대학원 14)
이윤석 동문(화학과 92)	정찬영 동문	최승미
이윤식 직원	장익수 동문(교육대학원 04)	최인찬 동문(전자계산기공학과 82)
이윤정 동문(교육대학원 14)	장창훈 동문	최재안 직원
이윤희 동문(교육대학원 14)	전도현 동문(전자통신공학과 16)	최재준 직원
이익희	전병호 동문(스포츠지도자학과 02)	최재정 직원
이재선 동문(화학과 93)	정경진 동문(대학원)	최정순 동문(교육대학원 13)
이정윤 동문(미디어영상학부 17)	정경학 동문(전자계산학과 91)	최정훈 직원
이정숙 동문	정기봉 동문(대학원 12)	최종대 동문(화학과 89)
이정준 동문(화학과 00)	정문호 교수(로봇학부)	최주엽 교수(전기공학과)
이종길	전서연 동문	최준혁 동문(교육대학원 15)
이종열 직원	전은선 동문	최진철 동문(신문방송학과 95)
이종용 외래교수(전자공학부)	정수미 동문(교육대학원 14)	최찬영 동문(컴퓨터공학부 99)
이종혁	정승민 동문(수학과 20)	최창호 직원
이주형 동문(화학과 01)	정승철 직원	최혜숙 동문(교육대학원 11)
이지항 동문(교육대학원 15)	정영욱 교수(전자공학과)	최홍선 직원
이지홍	정용준 동문(경영학과 83)	이상현 동문(추로바이커피 대표)
이진경 직원	정인숙 동문(교육대학원 11)	탁연복 학부모(경영학부 이승원)
이창문 직원	정인영 교수(전자통신공학과)	탁형욱 동문
이창민 동문(화학과 95)	정주원 동문(영어영문학과 02)	파란나라어린이집
이창석 동문(화학과 92)	정진우 직원	평생다문화전공
이채윤	정한영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한솔시스템
이현명 직원	조석효 직원	2024년 8월 1일 ~ 2024년 8월 30일
이현순 직원	조수열 직원	한해리 동문(화학과 05)
이현승 동문(화학과 08)	조애랑 동문(교육대학원 11)	한호숙 동문(교육대학원 14)
이해용 직원	조영록 직원	한철경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이혜정 동문(화학과 96)	조영주	함순정 동문
이현선 동문(전자통신공학 80)	조인성 동문(교육대학원 14)	함석진 동문(전자통신공학과 80)
이화정 동문(교육대학원 11)	조인숙 동문(화학과 97)	허정 동문(신문방송학과 96)
이홍섭 동문(경영학과 98)	조은서 동문	허진희 직원
이홍식 동문(전자공학과)	조준호 동문	홍명현 직원
임시혁 동문(경영학과 06)	조선영(광운학원 이사장)	홍정숙
임서현 동문	조성우 직원	홍헌표 동문(화학과 95)
임익순 동문(교육대학원 13)	조충현 직원	홍채은
임종대 직원	조형선	황대영
임주형	주문수 동문(화학과 88)	홍만의(대학원 행정학과 20,
임중식 직원	주이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임하순	진광희 동문(교육대학원 14)	황문희 동문(교육대학원 11)
임호선 직원	진민석	황종석 동문(전산 83)
임화영 명예교수(로봇학부)	진정민 동문(교육대학원 14)	NGUYENTHI
장은 동문	차주현 동문(대학원 14)	
장경순 직원	최금주 직원	
장동훈	최동호 동문(전자통신공학과 16)	
장미화 동문(교육대학원 13)	최민희 직원	



첨단학문의 중심 광운대학교

SI기반의 반도체 및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



광운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www.kw.ac.kr>



광운대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http://news.kw.ac.kr>



광운대학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wangwoonuniversity>



광운대학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w1934>



광운대학교 광운영상방송센터
<https://www.youtube.com/user/KWBConair>